푸르메재단
the Purme Foundation

The Purme Foundation 2014 Annual Report
110-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89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4층
Tel. 02. 720. 7002 Fax. 02. 720. 7025 www. purme.org

The Purme Foundation 10 year

The Purme Foundation 2014 Annual Report

함께한 10년
참 고맙습니다

푸르메재단
the Purme Foundation

푸르메재단 the Purme Foundation

{기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책임,
우리에게는 특권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푸르메재단의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

푸르메재단이 2014년 12월에 설립한 **'더미라클스'**는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2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연 2회 정기모임을 통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형 커뮤니티**입니다.

푸르메재단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89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4층 전화 : 02)720-7002** www. purme.org

The Purme Foundation 2014 Annual Report

함께한 10년, 참 고맙습니다

The Purme Foundation 10 year

Contents

Part 1 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푸르메재단
08 이사장 인사말
10 비전과 미션
11 어린이재활병원 건축 안내
16 2014년 살림살이 보고
18 2014년 모금현황 및 특징

Part 2 푸르메재단의 한결같은 10년
22 상임이사 인사말
24 10년 박물관
26 10년 다시보기
30 생생히 지켜본 푸르메
32 10년 동안 이렇게 컸어요
33 오래된 인연
34 함께해준 동반자

Part 3 힘차게 달려온 2014년
38 감사 편지
40 나눔 사업 개요
42 장애아동·청소년재활치료비지원사업
43 장애아동·청소년의료비지원사업
44 장애인구강건강증진지원사업
45 장애아동·청소년보조기구지원사업
46 장애아동·청소년정형신발(인솔)지원사업
47 객석나눔·따로또같이
48 SPC행복한가족여행
49 고담소담가족여행·비장애형제자매지원사업
50 미소원정대
51 희망보따리·장애인식개선사업
52 모금 활동 브리핑
54 만원의 기적 캠페인
55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
56 더미라클스
57 함께해서 즐거운 나눔
59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62 함께한 주요 기업들

Part 4 푸르메 가족 이야기
66 푸르메재활센터
70 과천시장애인복지관
72 종로장애인복지관
74 종로아이존
75 행복한베이커리&카페
76 2014 푸르메재단은
78 이사진 소개
80 홍보대사 소개
82 함께한 분들

당신과 함께 걸으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흔한 말. 푸르메재단에게는 날마다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지난 10년을 하루같이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옮긴 발걸음은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한결같은 10년

10

2015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푸르메재단이 닻을 올린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P.10) 지하 사무실 허름한 책상 두 개에서 시작된 푸르메의 꿈은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습니다.(P.26~29)

9000

장애어린이를 치료하는 일뿐 아니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병원을 짓겠다는 꿈은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9000여 명의 정성을 모아 2014년 3월 착공한 어린이재활병원은 21개월 동안 지어 2016년 초 문을 엽니다. 2014년에는 첫 삽을 뜬 이후 골조 공사를 마치고 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P.10~15)

힘차게 달려온 2014년

10556828671

2014년에는 5,313명의 기부자와 197개 기업, 256곳의 단체가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P.82~89) 모금액 10,556,828,671원은 2013년에 비해 약 3.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P.52~53) 이중 절반 이상은 12월에 모금되어 추운 겨울을 나눔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습니다.(P.18~19)

특히 홍보대사 션과 이지선이 직접 나서 펼치는 만원의 기적,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과 고액기부자 모임 '더미라클스', 시민과 스타, 기업이 함께한 크고 작은 나눔은 축제처럼 성대하고 즐겁게 이루어졌습니다.(P.54~61) 한해 모금액에 81%를 차지하는 기업의 기부도 크게 빛났습니다.(P.62~63)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으로만 소중히 사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P.16~17)

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푸르메재단

10

장애어린이를 위한 건립에 힘쓰는 한편 지금을 살아가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P.38~40) 푸르메 나눔사업은 장애와 가정형편을 이유로 먼 일이 되곤 하는 치료와 자립, 교육, 여가 등을 폭넓게 지원했습니다.(P. 42~51) 장애인과 가족을 당당하게 우뚝 서게 하는 나눔사업에는 10여 개 기업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P.41)

383728

푸르메나눔치과로 시작한 의료사업은 2012년 푸르메재활센터가 문을 연 후 대폭 확대되어 올 한해 재활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26,931건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P.66~69) 장애인에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과 종로장애인복지관도 연인원 356,797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P.70~73) 발달장애 어린이의 치료재활을 돕는 종로아이존과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일터 행복한베이커리&카페 등은 장애인과 가족의 필요를 꼼꼼히 살펴 충실하게 운영했습니다.(P.74~75)

∞

변함없는 마음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으면 언제까지나 꿈을 향해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르메재단에게 2015년은 특별한 한 해입니다. 어느덧 닻을 올린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조그만 벽돌이 모여 거대한 성채를 이루듯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까지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말입니다.

Part 01

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푸르메재단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여러분과 함께
꿈꿉니다

바람결에 봄 향기가 실려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성어린 손길을 보내주신 덕분에
풍성한 마음으로 또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푸르메재단에게 2015년은 특별한 한 해입니다.
어느덧 닻을 올린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조그만 벽돌이 모여 거대한 성채를 이루듯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까지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말입니다.

난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며 아무도 들어서려 하지 않은 길에 기꺼이 동행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푸르메재단이 꿈꿔온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봄이 되면 기부자 9천여 명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
장애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가 부단한 노력 끝에 한 걸음을 떼고
연필로 자기 이름을 썼을 때 기뻐하는 모습,
그런 아이를 보며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편안한 공간,
세상이라는 넓은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30만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푸르메재단의 10년 후를 그려가고 싶습니다.
희망의 홀씨를 뿌리겠다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2015. 3 푸르메재단 **이사장**

푸르메재단의 **비전**과 **미션**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비전 vision — **장애인이 장애인이지 않는 사회문화 조성**

미션 mission

- **장애인 전인재활 및 사회통합**
  - 재활의 선도
  - 존중과 통합
  - 미래가치 창출
- **나눔 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 나눔과 참여
  - 투명과 윤리

경영목적 The Purme Foundation

01 푸르메재단은 재활병원 건립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재단입니다.

02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03 푸르메재단은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04 장애인 재활 및 복지사업은 미래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현재의 투자입니다.

기적으로 또 **한 걸음**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한 시삽식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겠다.'는 푸르메재단의 꿈이 2014년 3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염원, 어린이재활병원이 2014년 3월 26일 첫 삽을 떴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으면 적자에 허덕인다고 모두가 포기했을 때, 푸르메재단과 9,000여 명의 시민, 기업이 나서서 이뤄낸 기적입니다.

"친구들과 맘껏 뛰놀며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어주세요."
장애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해 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2014년 3월 착공하여 21개월간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조롭게 건축 중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30.94%의 공정률(2015년 3월 11일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2014년 12월 23일, 넥슨 컴퍼니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200억 원 기부를 약정하면서 결정한 **어린이재활병원의 공식 명칭**입니다.

2014년 기적의 발자취

비어 있던 땅에는 장애인 가족의 염원과 시민들의 정성으로 차곡차곡 병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지하층 공사를 끝으로 지상에 건물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착공식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3/26)

토목공사 시작
토목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부지를 정리했습니다. (4/9)

CIP공사 완료
터파기에 앞서 외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단계인 흙막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5/14)

스트러트 완료 및 콘크리트 타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가시설(스트러트)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어 뼈대를 만드는 콘크리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9/10)

지하 1층 골조공사 완료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1/26)

지하층 합벽작업 진행
지하층 합벽(조적)작업이 막바지입니다. 제법 건물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12월 말)

장애어린이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희망이 될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을 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세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2014년에는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비전과 미션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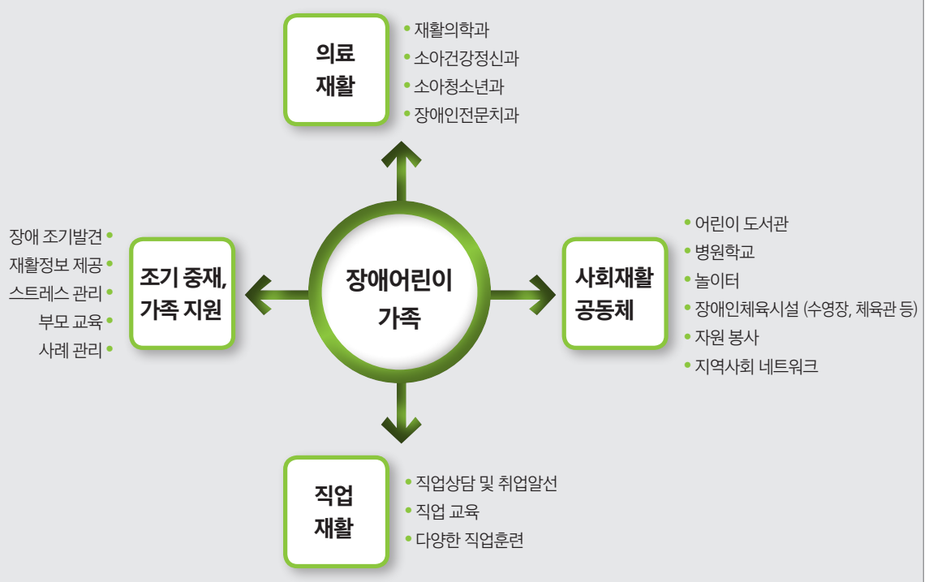
비전

장애어린이의
자립을 돕는 특별한
병원

미션

- 의료, 직업, 사회재활 통합서비스의 새로운 모델
- 가족중심 병원을 위한 다각적 지원시스템 적용
- 장애어린이에게 맞춘 전문 재활치료체계 확립
- 사회인식 개선 및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장애, 비장애 통합
- 공공의료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치료뿐 아니라 장애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 교육, 직업 통합적 재활모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주요 사업]

장애어린이를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어린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는 병원으로 운영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치유와 놀이의 공간

장애어린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시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이자 재활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병원 전체가 아이들의 놀이공간이자 치료 공간입니다. 5층에 '오감놀이터(가칭)'를 만들어 즐거운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지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628번지 일원 (확정지번 1738)	
대지 면적	3,212.90 ㎡ (971.90평)	
연면적	전체	18,378.75 ㎡ (5,560평)
	지상	10,336.31㎡ (3,127평)
	지하	8,042.44 ㎡ (2,433평)
건축 면적	1,907.15 ㎡ (577평)	
주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층수	지하 3층, 지상 7층	
건폐율	59.21%, 321,33%(용적률)	
병상 수	5층(44병상), 6층(47병상)	
예상이용자 수	**연간 150,000명, 일일 약 500여 명 이용 예정**	

치료실은 층간 이동이 없도록 한 층에 배치했습니다. 장애인치과는 3층에 있지만 주차장 건물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어린이 부모님과 의료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낮병동 확장, 치료 공간 추가 확보 등 설계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어린이 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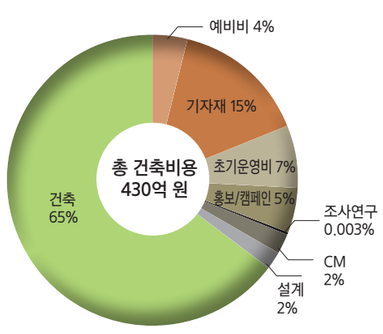
공간	위치	주요사업	주요 이용대상
수영장	지하 1층	수영 강습(성인, 주부, 키즈), 수치료실 운영	지역 주민, 장애인가족
문화교실	지하 1층	문화 활동, 자원 봉사	지역 주민
어린이도서관	지상 1층	도서 대여, 독서캠페인, 어린이감성 놀이시설 운영	장애·비장애아동, 지역 주민
병원학교	지상 5, 6층	입원 어린이를 위한 특수교육	입원 치료중인 장애어린이
직업재활센터	지하 2층	일자리 지원 및 고용, 훈련, 직업 상담	장애청년, 자원봉사자
옥상정원 및 식당	지상 7층	식당, 스카이라운지, 놀이터, 옥상정원	병원 이용자, 지역 주민

장애어린이와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1일, 30.94%의 공정이 진행된 병원 건축 현장

공사 비용 및 투입 현황

병원의 총 건립비는 약 430억 원입니다. 2013년 예상했던 400억 원에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초기 운영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항목		금액
총계		**430억 원**
조사연구		1억 원
건축비	**소계**	**316억 원**
	CM	11억 원
	설계	11억 원
	건축	278억 원
	예비비	16억 원
초기운영비		**30억 원**
기자재		**63억 원**
캠페인, 홍보		**20억 원**

※ 부지구입비 93억 원 마포구청 제공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함께 만들고 있는 분들

서울시와 마포구에서도 병원의 건립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은 나눔에 동참한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	CM단(감리)	설계	시공
서울시, 마포구	㈜한미글로벌	㈜간삼건축	㈜강산건설

함 께 한 분 들

개인 **5,313**명 | 기업 **197**개 | 단체 **256**곳

수 입 ₩20,063,810,300

지정기부금수입 ›→ **10,216,571,008**
재활치료시설건립 및 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배분사업, 기타지정

비지정기부금수입 ›→ **585,788,633**

현물수입 ›→ **354,469,030**

마포 어린이재활병원 주차장매입 ›→ **8,600,000,000**
임대보증금 및 은행차입금

이자수입 ›→ **185,402,942**

배당수입 ›→ **7,250,563**

기타수입 ›→ **114,328,124**

지 출 ₩19,566,926,723

재산조성비 ›→ **9,510,591,590**
마포 어린이재활병원 주차장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모금사업비 **42,774,315**

배분사업비 ›→ **482,325,769**
치료비 • 보조기구 • 치과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 **570,911,990**
푸르메재활센터 및 복지관 사업비

재활치료시설 건립비 ›→ **7,862,618,304**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홍보사업비 ›→ **117,208,485**
기금모금 홍보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 239,559,354
재단운영을 위한 기타비용

인건비 ›→ 740,936,916

2014년 살림살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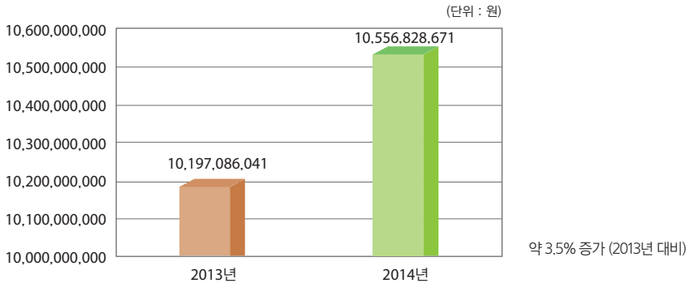
푸르메재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푸르메재단에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 건립과 장애인을 위한 배분사업으로 소중히 사용됩니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부금의 내역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모금** 현황 및 특징

3.5%

2014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푸르메재단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모금액 **10,556,828,671**원은 2013년에 비해 약 **3.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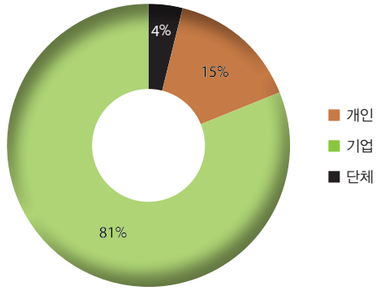
모금현황



81%

푸르메재단의 모금액 10,556,828,671원 중 81%(8,513,630,757원)는 기업에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개인이 15%(1,593,114,283원), 단체가 4%(450,083,631원)를 차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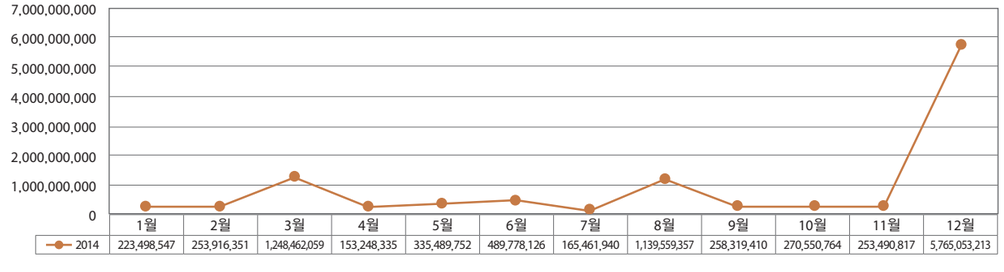
모금현황



54.6%

추운 12월에 푸르메재단의 마음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기업들의 활발한 기부로 한 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인 54.6%(5,765,053,213원)가 12월에 모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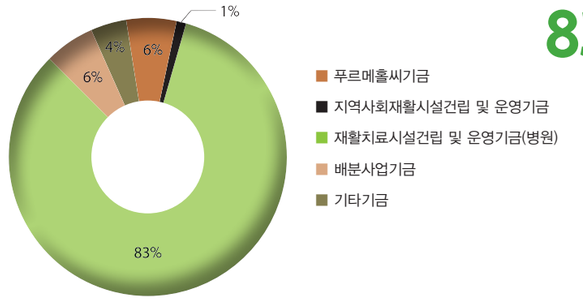
월별 모금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223,498,547	253,916,351	1,248,462,059	153,248,335	335,489,752	489,778,126	165,461,940	1,139,559,357	258,319,410	270,550,764	253,490,817	5,765,053,213

기금별 모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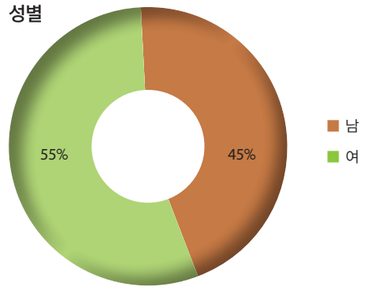
기금별 모금현황은 2013년과 같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재활치료시설 건립 및 운영기금이 83%로 가장 높으며 치료비인 배분사업기금과 운영비인 푸르메홀씨기금이 각 6%를 차지했습니다.



83%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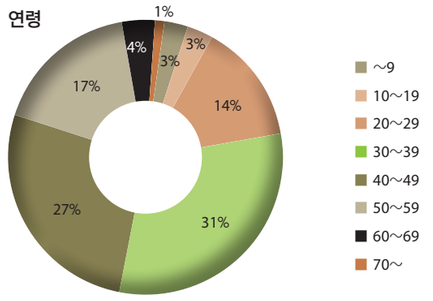
개인 기부자의 성별은 여성이 55%로 남성 45% 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남성 비율은 2012년 37%, 2013년 39%로 서서히 높아지다가 2014년도에 45%까지 늘었습니다.



45%

연령

개인 기부자의 연령은 30대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0대(27%), 50대(17%), 20대(14%) 순으로 2013년과 유사합니다. 30~40대 여성들이 푸르메재단의 적극적인 기부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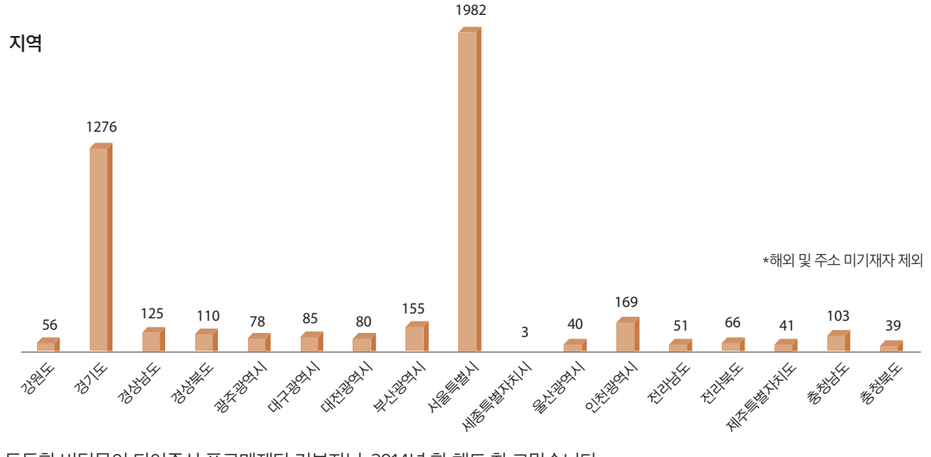


31%

개인 기부자의 73%(3,258명)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분들입니다.

73%

지역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푸르메재단 기부자님, 2014년 한 해도 참 고맙습니다.

10년 전 작은 지하사무실에서 두 개의 책상으로 시작한 푸르메재단의 기적이 여러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주신 후원자님들께 마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Part 02

푸르메재단의 한결같은 10년

날마다 **기적**을 만납니다

"저도 기부할 수 있나요."
몸이 불편한 아주머니 한 분이 기부신청서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멀리 천안에서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푸르메치과〉에 오시는 김숙희 아주머니입니다. 목소리와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였던 아주머니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영자 씨처럼 1971년 독일로 파견돼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몸집이 큰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간호하면서 고국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독일 근무를 무사히 끝내고 귀국한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계통의 질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1년 뒤 겨우 일어났을 때에는 심한 뇌성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걷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곤 했고 이로 인해 치아를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푸르메치과를 알게 돼 진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35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아주머니가 매달 1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신청서를 써오신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언론계에 있는 친한 선배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불쑥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5천만 원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인데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데 사용해주세요." 기부하시게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타던 중형차를 팔고 새로 나온 차를 살 계획으로 매달 월급을 아껴서 저축을 해왔다고 합니다. 목표했던 금액이 모이자 그동안 타던 자동차를 몰고 정비소에 갔습니다. 고장난 곳을 깨끗하게 수리한 뒤 이를 중고차시장에 팔고 그렇게 원하던 새 차를 사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차를 정비하던 직원으로부터 "어떻게 차를 이렇게 깨끗이 타셨어요. 앞으로 5년은 더 타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꽝하고 맞았다고 합니다. '내가 더 좋은 곳에 이 돈을 써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됐고 결국 푸르메재단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매주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조금 넉넉하거나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든든한 후원자 중 90퍼센트 이상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푸르메재단이 짓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곧 병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병원이 문을 열면 그동안 병원을 짓는데 벽돌을 기부해주시고 대들보를 만들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10년 전 작은 지하사무실에서 두 개의 책상으로 시작한 푸르메재단의 기적이 여러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주신 후원자님들께 마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백경학 드림

푸르메 10년 **박물관**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한 방향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온 10년. 때론 지름길로 때론 먼 길로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길에 어떤 모양 발자국이 남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유물'을 찾으면 제보를 달라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지 한 달. 볼수록 웃음이 나는 유물이 모였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해 여기에 아주 작은 박물관 한 페이지를 남깁니다.

입으면 누구나 천사로 변신, **연탄배달용 앞치마**

↕ 푸르메센터 지하창고에서 출토된 정통 연탄배달 복식. 제보에 따르면 앞치마뿐 아니라 연탄배달 전용 고무장갑도 최근까지 보관되어 있었다고.

푸르메재단이 설립된 2005년 초겨울 어느 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에게 온기를 전해드리자는 취지로 연탄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연탄배달은 재단의 전통처럼 자리 잡아 매년 계속 되었습니다. 푸르메센터를 건립하고 어린이 재활병원을 준비하는 최근 몇 년은 하지 못했는데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달려가던 그 마음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첫 의료사업의 상징, **푸르메치과 진료카드와 문패**

↔ ↕ 개원 초기에 사용하던 진료카드와 문패.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직원은 "장애인 환자가 진료 날짜를 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만들던 때가 기억나요. 소중한 기부금으로 연 곳이니 멋진 간판에 쓸 돈도 아껴 작은 문패를 걸었어요."하고 말했다.

"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푸르메재단을 찾아온 장애인의 한 마디 말에서 시작된 장애인 전용 치과가 문을 열던 날. 처음 만들었던 진료카드와 치과 문패가 당시부터 일 해온 한 직원의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장애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치과에서 마음 편히 치료받겠다며 전국에서 찾아온 환자들이 줄을 이은 것이 벌써 8년이나 되었습니다.

불후의 패션아이템, **노란색 조끼**

↕ ↔ "재활병원을 짓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라는 이지선 씨의 외침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지선 씨의 뉴욕마라톤 완주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지선 씨와 같은 노란 조끼를 입고 장애인을 위해 달렸다.

2009년 11월 1일, 푸르메재단의 재활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뉴욕마라톤에 참가한 이지선 씨가 7시간 22분 만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땀을 배출할 수 없는 화상환자에게 42.195km 마라톤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재활병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요."라는 지선 씨의 목소리는 감동이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희망천사'와 함께하는 달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식 행사 마스코트, **해바라기 꽃**

↕ ↔ "우리도 할 수 있다!" 장애인 마라토너를 따라 뉴욕까지 다녀온 바로 그 해바라기. 당시 함께 다녀온 모 직원의 침대 밑에서 발굴.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희망의 홀씨'를 퍼트리겠다는 푸르메재단. 재활병원 건립 선포식에서도 마라톤에서도, 모금 방송에서도 해바라기와 함께 했습니다. 나눔이 퍼져나가고 재활과 행복의 꽃을 피워내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나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한 곳만 보는 해바라기처럼 앞으로도 우직한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푸르메재단과의 추억이 떠올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이 물건들을 간직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푸르메 **10년史**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고 푸르메가 달려온 10년은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장애인을 위한 외길이었기에 흔들리거나 자만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절실함이 오늘의 푸르메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사무실 허름한 책상에서 푸르메의 꿈은 자라났습니다. 푸르메재단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재활병원을 짓겠다는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기부자와 함께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사진으로 지난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01

03

04

05

06

07

08

8-1

09

10

10-1

11

12

02

01 푸르메재단 설립을 위해 뜻을 모으다.
2004년 8월 17일 창단 발기인 대회 (프레스센터)

02 푸르메재단 설립 허가를 받다. <재단 설립일>
2005년 3월 9일 재단법인 설립 허가 (보건복지부)

03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첫 사업을 펼치다.
2005년 9월 5일 장애인 사진전 [세상을 만나는 또 다른 시선]

04 콘서트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서다.
2005년 10월 14일 조선일보-CBS와 함께한 콘서트 [희망으로 한걸음]

05 큰 주춧돌이 놓이다.
2006년 5월 30일 황혜경 기부자,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10억 원 기부
2006년 8월 31일 이재식·양남수 부부 기부자, 3억 상당 토지 기부

13

06 맥주집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2006년 11월 9일 김창완, 전제덕의 자선콘서트 [푸르메재단 후원의 밤]

07 축제를 열어 병원의 필요성을 알리다.
2007년 4월 21일 자선 마라톤 및 사진전 [희망의 자선 마라톤]

08 첫 의료사업을 시작하다.
2007년 7월 18일 민간 최초 장애인치과 개원 [푸르메나눔치과]
2007년 8월 21일 장애어린이를 위한 한방의원 개원 [푸르메어린이재활센터]

09 좋은 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책을 만들다.
2008년 5월 20일 선진국 재활시설 탐방기 [장애인천국을 가다] 출간

10 함께 달리고 오르다.
2008년 9월 4일 엄홍길 대장과 장애청소년 [백두산 트래킹]
2008년 9월 28일 베를린 국제마라톤 [2008 감동의 마라톤]

11 치과 봉사를 떠나다.
2009년 1월 22일 네팔 히말라야 치과의료봉사 [네팔 미소원정대]

12 재활병원 건립을 선포하다.
2009년 4월 8일 푸르메재활병원 건립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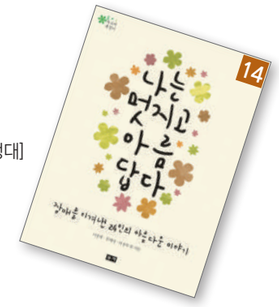
13 이지선 42.195km 완주하다.
2009년 11월 1일 이지선 홍보대사와 함께한 뉴욕마라톤 [2009 감동의 마라톤]

14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책을 만들다.
2010년 1월 22일 푸르메책꽃이 1권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15 국내 장애인 시설을 정기적으로 돌보다.
2010년 5월 30일 국내 치과의료봉사단 출범 [푸르메 미소원정대]

16 가수 션, 장애어린이들의 삼촌이 되다.
2011년 5월 17일 가수 션,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위촉

17 푸르메재단의 투명성 인정받다.
2011년 9월 15일 제3회 삼일투명경영 대상 수상



18 생방송으로 모금을 하다.
2011년 5월 27일, 10월 3일 MBC 특별생방송 [희망의 손잡기]

19 신문사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다.
2011년 10월 25일 동아일보와 함께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캠페인 [기적을 부탁해]

20 대국민 기부 캠페인이 시작되다.
2012년 2월 7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마련 [션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21 키다리 아저씨가 큰 선물을 주시다.
2012년 4월 24일 이철재 기부자, 재활시설건립기금 10억 원 기부

22 장애인을 위한 터전이 마련되다.
2012년 7월 4일 종로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개관

23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어린이 동화책을 펴내다.
2013년 7월 8일 뜨인돌출판사와 동화책 발간 [푸르메놀이터 시리즈 3권]

24 대국민 기부 캠페인이 또 생겼다.
2013년 11월 5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마련 [이지선과 함께하는 기적의 손잡기]

25 어린이재활병원의 첫 삽을 뜨다.
2014년 3월 26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

26 책을 사면 기부된다.
2014년 5월 17일 교보문고·동아일보와 함께하는 캠페인 [기적의 책]

27 4명의 큰 손이 나섰다.
2014년 12월 2일 고객기부자 클럽 론칭 [더미라클스]

28 병원 건립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다.
2014년 12월 23일 넥슨 컴퍼니 200억 원 기부 약정 및 병원명 확정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푸르메재단과 함께한 소중한 **10년 인연**

2004년 9월 우연처럼 푸르메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백경학 상임이사의 사연을 접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백경학 상임이사가 잡지 '샘터' 9월호에 기고한 '미치지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기사를 읽고 푸르메재단을 알게 되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인간 백경학 상임이사를 응원하고 싶었다. 영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아내를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재활병원을 짓기 위해 동분서주 했던 백경학 상임이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재활병원 건립의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안정적이었던 신문사 기자직을 포기하고 맥주전문점(옥토버훼스트)을 열게 된 사연을 접하게 되니 무엇이든지 돕고 싶었다. 맥주전문점 홈페이지에 응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며칠 후 답장을 통해 백경학 상임이사의 진정어린 인간성을 느낄 수 있었다.

2005년 3월 푸르메재단 설립 허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때부터 기부금을 낼 수 있었다. 도움의 첫걸음은 기부금이라고 생각했고 첫 기부금액은 3만 원으로 결정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5천 원씩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푸르메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내 기부금은 사회적 보험에 가입한 보험료라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장애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푸르메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푸르메재단의 첫 사무실은 종로에 위치한 맥주전문점 지하에 있었다. 말이 사무실이지 맥주전문점 구석 한 공간을 빌려 쓰는 구조였다. 책상 2개가 전부인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푸르메재단의 꿈이 시작되는 소중한 곳임을 느낄 수 있었다. 푸르메재단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푸르메동호회'를 만들어 재단의 행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지선 홍보대사 위촉식, <세상을 만나는 또다른 시선> 사진전, <희망으로 한 걸음> 콘서트, <사랑의 연탄 나눔> 등 재단 창립 첫 해에 있었던 다양한 일부터 함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총 다섯 차례 실시한 연탄 나눔 행사가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반응이 좋았고 많은 추억을 남겼다. 2008년 연탄 나눔은 내가 근무하는 회사 신입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흥을 돋울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2010년 1월 부암동에서 진행했던 연탄 나눔은 사내보에 실려서 더욱 의미 깊었다. 특히 삼성SDS, 삼성자산운용,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직원들과 함께 했던 2010년 12월 연탄 나눔 활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만삭인 아내를 응급실에 데려 갔다가 연탄 한 장이라도 나르겠다며 먼 길을 달려온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숯검정을 묻히고도 웃었던 직원들의 열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푸르메재단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에게 푸르메재단 홍보대사를 부탁했다. 재활병원의 필요성과 푸르메재단의 간절함이 서경덕 교수에게 닿았는지 흔쾌히 허락을 받아냈다. 2011년 샘터에서 이해인 수녀 산문집 발간 기념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북콘서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북콘서트가 푸르메재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신나게 함께한 시간이었다.

백경학 상임이사의 안타깝지만 감동적인 사연을 접하고 함께한 봉사활동이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인연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한번 보고 헤어지는 것이 익숙한 삶에서 인연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 푸르메재단의 건실한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며 남을 돕겠다고 시작한 자원봉사가 오히려 나에게 큰 행복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10년 전 잡지에 실린 글을 내가 읽지 못했다면 이런 인연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하다.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푸르메재단과의 10년은 그래서 더 소중하다.

글 유영인 기부자 (삼성SDS)

2010년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영인 기부자(오른쪽)

멋지게 물살을 가르는 **수영선수**가 되고 싶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어린이는 꿈도 자주 바뀝니다. 태환이처럼 말이지요. 2012년 푸르메재활센터가 문을 열면서 푸르메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는 태환이와 어머니 김강림 씨를 만나봤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의 마스코트 태환이와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에는 어떤 계기로 다니기 시작했나요?

태환이는 31주에 이른둥이로 태어났어요. 돌 지날 무렵에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2004년이니 푸르메재단이 설립될 무렵이네요.
태환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푸르메재활센터가 막 완공되었어요. 그때 우연히 장애어린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받았어요. 푸르메재활센터에 바라는 점을 꼼꼼히 적으면서 '이곳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치료를 받아보니 기대하셨던 것과 같았나요?

마음을 다해 치료해주시는 치료사 선생님들과 격 없이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원장님들까지, 기대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가 있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게 현실인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푸르메재단 나눔사업을 통해 작년에는 언어치료를 받았고 올해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고 있어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푸르메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던 태환이가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혼자 힘으로 발을 떼는 게 힘들었는데 걷는 연습도 하게 됐고요. 언어치료사도 태환이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진대요. 말을 잘 하지 못하다보니 태환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려서 속상하다는 말을 가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간다고 하니 아주 큰 변화지요.

푸르메재단이 이제 10주년을 맞이했고, 2016년이면 어린이재활병원도 문을 엽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태환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꿈이 바뀝니다. 커가는 과정이라서 그렇겠죠. 지금은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네요. 어린이재활병원이 생기면 수중재활치료실도 생긴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태환이도 더 건강해지고 무럭무럭 꿈을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태환이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자랑스러운 태환아, 조금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겠지만 지금처럼 밝게 자라 주길 바란다. 우리 늘 열심히 노력하자.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줘서 고맙고 사랑해. 파이팅!

10년 동안 **기부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죠

푸르메재단이 생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정기기부를 해주고 계신 기부자가 계십니다. 작은 일을 실천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인터뷰를 사양하던 이종교 기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종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푸르메재단이 2005년에는 너무 작은 재단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알고 기부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서울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장애인을 돕기 위한 푸르메재단 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취지를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기 기부할 의사를 밝히자 재단 설립 직후 연락이 와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바이러스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며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인 딸도 생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며 화학을 전공하는 아들도 곧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입니다. 남편도 이공계 연구원으로 정년퇴임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덕분에 내년 봄에 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합니다.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푸르메재단의 활동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완공된다고 하니 저 역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어렸던 제 아이들이 벌써 성인이 되었는데 건강하게 자란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고, 혹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곳에 기부를 실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기부는 어떤 일인가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제가 일하고 돈을 번다는 것에 신기해하곤 합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은 항상 빠듯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기부금을 미리 떼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편한 것은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적은 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푸르메재단에 기부를 하시면서 얻은 보람과 장애어린이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푸르메재단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10년간 푸르메재단과 인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사고나 어려움이 없었기에 꾸준한 기부가 가능하였던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애는 불편하지만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것은 돈도 들지 않고 누구를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면 어느덧 꿈을 이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푸르메의 **든든한 동반자**가 보내준 이야기

장애인을 위해 푸르메재단이 걸어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부자와 봉사자,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처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질 무렵, 10살 된 푸르메와 함께하는 분들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신영증권

첫 기부라는 마중물,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나눔의 힘

2005년 우연히 푸르메재단 설립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경학 상임이사 부부의 영국 교통사고 소식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세우겠다는 취지에 큰 감동을 받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첫 마음을 잊지 않고 2013년에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와 장애인 의료복지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아름다운 병원 건립에 소중한 씨앗이 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에 대한 신뢰와 투명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

백두산 천지를 품은 장애어린이의 아름다운 삶을 피워내길

'푸르메재단' 하면 2007년에 엄홍길 대장, 장애청소년들과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던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누가 뒤처지진 않는지 돌아보고 손을 잡고 함께했던 아이들이 참 예뻤어요.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아이들과 백두산의 의미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거대한 백두산에도 천지라는 눈물샘이 존재해요. 백두산이 아름다운 것은 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만의 눈물샘을 품고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이 찬란히 비치는 천지의 맑은 햇살을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어린이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곳이잖아요. 10년 동안 긍정적이고 선한 목표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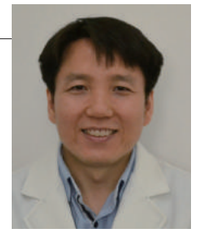
임정진 동화작가

행복을 향한 네 바퀴를 잘 굴려주세요

장애청소년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에 강사로 참여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청각장애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랐어요. 해발 3,450m의 네팔 남체바자르 오지 마을로 치과 봉사를 가기도 했었죠. 혼자였다면 가지 못했을 텐데 주민들의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어 행복했어요. 인세와 우수교원상 상금 기부, 다양한 행사에 일손을 보태며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지 '푸르메재단의 왕언니'라는 별명도 붙었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을 잘 짓고 전문적인 치료를 잘 수행해 많은 기부자들의 신뢰를 계속 이끌어 내주길 기대해요. 지난 시간처럼 기부자와 이용자, 지역주민과 재단직원이 네 개의 바퀴를 잘 굴려 나가리라 믿습니다.

석도준 웰플란트치과 원장

항상 초심을 지키고 내실있게 우뚝 서주세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네팔 주민들을 위한 치과진료봉사 '네팔 미소원정대'에 참여했었습니다. 같이 갔던 직원들과 봉사자 모두 좋은 분들이어서 돌아와서도 기회 닿는 대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러다 푸르메치과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요. 필요한 장비와 진료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진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저렴합니다. 얼굴만 내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특히 상태가 심각했던 환자 분들이 잘 씹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푸르메재단이 점차 규모가 커지는 만큼 내실도 탄탄하게 다져가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초심이 변치 않기를 희망합니다.

두정희 푸르메재활센터 치료실장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걸을 때의 기쁨이 계속되길

푸르메재단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되어 2012년부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떠올리면 보람 있었던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제가 치료한 장애어린이가 좋아졌을 때예요.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되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푸르메재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 아닌 다른 이를 생각해 무엇을 실행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좀 더 힘내주세요!

설재우 작가

서촌을 대표하는 곳으로 오래도록 빛나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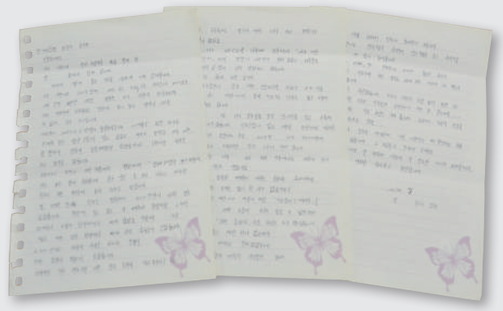
서촌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웠어요. 맹학교와 농학교가 있어서 어릴 적부터 장애인과는 이웃처럼 지냈거든요. 서촌에 관한 책을 내면서 지역에 은혜를 갚고 싶었고 장애어린이를 생각하며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게 됐죠. 동네 모임에서 경매 수익금을 기부하고 모금함을 놓거나 행사 포스터를 붙이는 일들은 이제 일상이 됐어요. 동네 일이 제 일이고 푸르메재단의 일이 제 일이니까요. 이웃으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100주년을 맞은 특수학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푸르메재단이 서촌을 대표하는 곳으로 계속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난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며 아무도 들어서려 하지 않은 길에 기꺼이 동행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Part 03

힘차게 달려온 2014년

기훈이의 작은 희망 이야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야 하는 38주. 그 시간 동안 아기는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 무럭무럭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 기훈이는 무엇이 급했는지 25주 6일 만에 930g이라는 작은 몸으로 엄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너무 작게 태어난 기훈이는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뇌출혈 4기, 선천적 장관 패쇄 그리고 혈관에 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날 무렵,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포기요청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숨을 쉬지 못하는 기훈이에게 마지막 순간이 오면 편하게 보내 주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을 기훈이는 잘 이겨냈고 중환자실에서 6번의 수술을 견디며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기훈이가 신생아중환자실을 나올 때 '28주 미만 초극저체중아'라는 것을 포함해 28가지 병명을 얻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뇌가 반의 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수술을 위한 입원과 퇴원으로 꼬박 1년을 보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때에는 1주일 병원비로 400만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던 '살아만 달라.'는 바람은 통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는 계속 됐습니다. 지금도 심장, 재활, 신경외과를 비롯해 8개 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물리와 작업치료를 받고 있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비급여 치료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이 없는 우리 가족은 병원비며 치료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고, 지금껏 쓴 치료비만 1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르메재단의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쓰면서도 기대보다는 안 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껏 다른 기관에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지만 남편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를 늘 지원 대상에서 밀려났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 기훈이의 상황과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원을 통해 받게 된 언어치료는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기훈이가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상호작용도 늘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다른 말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치료 받아 푸르메재단과 지원 기업에게 기훈이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도움이 얼마나 절실하고 큰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기훈이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정기훈 엄마 드림

2014 푸르메재단 **나눔사업** 소개

장애인과 가족이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일, 여가를 즐기는 일도 장애와 가정형편을 이유로 먼 일이 되곤 합니다.

푸르메재단 나눔사업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해 장애인과 가족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의료적인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가족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의료/ 재활 지원 분야	장애아동 • 청소년 재활치료비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6개월간 200만 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아동 • 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6개월간 300만 원 한도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지원사업	장애인에게 6개월간 250만 원 한도의 비급여 치과치료비 지원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 분야	장애아동 • 청소년 보조기구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300만 원 한도의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장애아동 • 청소년 정형신발(인솔)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100만 원 한도의 맞춤형 정형신발 또는 인솔을 지원
교육/문화 • 여가 지원 분야	객석나눔	문화 •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뮤지컬 공연 티켓 지원
	따로또같이	장애자녀와 부모에게 문화 • 여가활동 지원
	행복한 가족여행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가족여행 지원
	비장애형제자매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아동에게 교육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기타 사업	미소원정대	의료적 사각지대에 생활하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게 구강진료 등 방문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식 개선 자료 제작 및 배포

2014 푸르메재단 나눔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SPC그룹은 SPC 행복한기금 2억 1천만 원을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의료비, 보조기구, 정형신발, 가족여행 등에 지원

현대모비스그룹은 장애아동재활기금 3억 원을 장애아동 보조기구지원, 재활치료비, 생필품지원, 장애인식개선, 가족여행 등에 지원

효성그룹은 장애아동재활기금 5천만 원을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비장애형제 지원, 가족여행 등에 지원

신한은행은 장애인재활기금 3천만 원을 장애인을 위한 치과치료비 및 방문 의료 진료 등에 지원

에드링턴코리아는 장애아동재활기금 3천2백만 원을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를 위해 지원

보령중보재단은 장애아동재활기금 6백만 원을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를 위해 지원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조기에 치료받으면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조금은 느리지만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 **지원 횟수** : 연 6회
-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 **지원 기준**
  - 1차 기초 평가(적격성 평가) :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및 기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지원 실적

- 상반기

지원자 수	23명(1차 : 17명, 2차 : 6명)
지원 금액	6,967만 원
지원 대상 장애 유형	뇌병변(9명), 뇌병변·시각(1명), 언어·청각(1명), 언어(1명), 자폐(1명), 지적(2명), 청각(1명), 미등록(7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11명), 2급(2명), 3급(3명), 미등록(7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4명), 차상위(7명), 저소득(11명), 기타(1명 / 외국인)

- 하반기

지원자 수	78명(3차 : 18명, 4차 : 20명, 5차 : 10명, 6차 : 30명)
지원 금액	13,955만 원
지원 대상 장애 유형	뇌병변(56명), 뇌병변·언어(3명), 자폐(1명), 지적(7명), 지적·뇌병변(1명), 지체(2명), 청각(1명), 미등록(7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65명), 2급(4명), 3급(2명), 미등록(7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16명), 차상위(23명), 저소득(38명), 기타(1명)

지원 기업

SPC 효성 EDRINGTON KOREA HYUNDAI MOBIS BORYUNG 보령중보재단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가정은 계속되는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꼭 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의료비 때문에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아이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기댈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 **지원 횟수** : 총 7회
-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 원 한도 의료비(수술비 및 입원치료비, 주사치료 / 3개월간 지원) 및 1인당 100만 원 한도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
- **지원 기준**
  - 1차 기초 평가(적격성 평가) :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및 기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지원 실적

지원자 수	16명
지원 금액 및 내용	2,795만 원 안과 수술, 비뇨기과 수술, 다리 수술, 션트 수술(뇌압조절), 근육강직치료(보톡스), 희귀질환(미토콘드리아근병증) 주사 치료, 장애진단 검사, 질병진단 검사비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6세 이하(6명), 만 7세~12세(7명), 만 13세~18세(3명)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지적(1명), 뇌병변(8명), 지체(1명), 미등록(6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9명), 3급(1명), 미등록(6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10명), 차상위(3명), 저소득(3명)

위험했던 창현이의 여름

창현이(가명)는 고작 네 살입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수두증으로 뇌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15번의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반복된 수술과 입원으로 창현이 부모님은 큰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2014년 여름 어느 날, 창현이가 갑작스러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해 급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푸르메재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아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창현이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원 기업

SPC

건강한 치아로 **웃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의 구강질환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치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아픈 치아는 식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높은 치료비와 치과 병원의 편견은 장애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전국 7개의 치과병원과 손잡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상반기(1차, 2차) : 치과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65세 미만 장애인
  - 하반기(3차, 4차) : 치과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 내용** : 1인당 250만 원 한도의 비급여 항목의 치과치료비
- **지원 기준**
  - 1차 기초 평가(적격성 평가) :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3차 치과 전문의 평가(적합성 평가) : 지원의 적합성

지원 실적

지원자 수	23명(1차 : 5명, 2차 : 7명, 3차 : 5명, 4차 : 6명)
지원 금액	3,811만 원(1차 : 1,059만 원, 2차 : 1,426만 원, 3차 : 498만 원, 4차 : 828만 원)
지원 대상 연령	10대(11명), 30대(2명), 40대(5명), 50대(5명)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지적(12명), 지체(1명), 뇌병변(5명), 시각(1명), 청각(2명), 정신(1명), 신장(1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9명), 2급(6명), 3급(7명), 4급(1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15명), 차상위(3명), 저소득(5명)

지원 기업 신한은행 SHINHAN BANK, SPC

꼭 맞는 보조기구, **희망을 맞춰**드립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모두 다른 형태의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생활을 도와주면 아이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꼭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보조기구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 **지원 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 원 한도의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 **지원 기준**
  - 1차 기초 평가(적격성 평가) :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3차 보조공학사 평가(적합성 평가) : 지원의 적합성

지원 실적

지원자 수	71명(상반기 21명, 하반기 50명)
지원 금액	18,658만 원(상반기 4,658만 원, 하반기 14,000만 원)
지원 대상 연령	만 6세 이하(26명), 만 7~12세(35명), 만 13세 이상(10명)
지원 대상 장애 유형	뇌병변(65명), 지체(1명), 시각(1명), 지적(1명), 자폐(3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67명), 2급(3명), 5급(1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25명), 차상위(19명), 저소득(13명), 기타(14명)

지원 기업 SPC, HYUNDAI MOBIS

느리지만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발의 변형으로 걷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꼭 맞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특히 걷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가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정형신발'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정형신발과 인솔(맞춤형 깔창)을 통해 바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발의 변형으로 인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
- **지원 횟수** : 연 5회
- **지원 내용** : 1인당 100만 원 한도 정형신발 또는 인솔(맞춤형 깔창)
- **지원 기준** :
  - 1차 기초 평가(적격성 평가) :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3차 슈마이스터 평가(적합성 평가) : 지원의 적합성

지원 실적

지원자 수	34명(1차 : 8명, 2차 : 6명, 3차 : 9명, 4차 : 8명, 5차 : 3명)
지원 금액	11,268,490원
지원 대상 연령	만 6세 이하(9명), 만 7세~12세(5명) 만 13세~18세(20명)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지적(16명), 뇌병변(13명), 발달(1명), 시각(2명), 미등록(2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21명), 2급(6명), 3급(3명), 5급(1명), 6급(1명), 미등록(2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18명), 차상위(6명), 저소득(1명), 기타(9명)

걷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명)는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발 모양에 변형이 생겨 서기 어렵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발의 변형을 막고 통증을 줄여줄 맞춤형 신발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구입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정형신발 지원사업을 통해 새 신발을 지원받았습니다. "하나와 단둘이 살고 있어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척 마음이 든든합니다." 꼭 맞는 신발을 신고 활짝 웃는 하나를 보면서 엄마는 행복한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원 기업 SPC WALKING ON THE CLOUD Schuhmeister

한 편의 공연으로 **삶의 여유**를 찾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문화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에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
- **지원 횟수** : 연 12회 (매월 1회)
- **지원 내용** : 문화 공연 티켓 지원 (뮤지컬 'JUMP', '락시터', '당신만이')

지원 실적

지원자 수	448명(46개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지원 대상 연령	10대 이하(13명), 11세~20세(51명), 21세~30세(146명), 31세~40세(98명), 41세~50세(98명), 51세~60세(39명), 61세 이상(3명)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지체(29명), 청각(34명), 지적(143명), 뇌병변(7명), 발달(58명), 중복(1명), 미등록(3명), 비장애(173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84명), 2급(111명), 3급(72명), 4급(2명), 5급(4명), 6급(2명), 비장애(173명)

지원 기업 예술적 감수성 도모컴퍼니

따로또같이

함께 해도, 따로 해도 **행복**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와 가족들은 양육과 빠듯한 치료 일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잠시나마 부모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잊고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나이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족
- **지원 횟수** : 연 1회
- **지원 인원** : 장애인 가족 45가족 40명 (기관 인솔자 포함)
- **지원 내용** : 가족 공연관람 '볼쇼이 솔리스트 갈라콘서트' 및 식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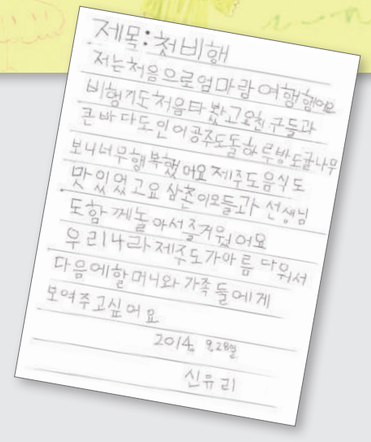
지원 기업 Newstomato

꿈에 그리던 첫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SPC행복한펀드를 통해 재활치료비를 지원받는 장애아동과 가족은 특별한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홉 가족이 함께한 2박 3일의 여행으로 치료와 양육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SPC를 통해 지원 받은 장애아동과 가족
- **지원 시기** : 2014년 9월 22일 ~ 9월 24일
- **지원자 수** : 9가족 35명
- **지원 내용** : 제주도 여행 경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유리의 그림과 편지

지원 기업 SPC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하여 동네조차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손발처럼 함께할 봉사자들이 가족별로 함께해 편리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정동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현대모비스를 통해 지원받은 장애아동과 가족
- **지원 시기** : 2014년 11월 6일 ~ 11월 7일
- **지원자 수** : 80명 (16가족 57명 및 현대모비스 봉사자 23명)
- **지원 내용** : 강원도 여행 경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 기업 HYUNDAI MOBIS

비장애형제자매지원사업

마음을 열고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위해

장애인을 형제로 둔 비장애아동은 가족의 관심과 양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됩니다. 당장 치료가 시급한 형제에게 애정과 지원을 양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비장애형제·자매에게 심리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은 장애아동·청소년의 비장애형제, 자매
- **지원 횟수** : 연 1회
- **지원 인원** : 10명
- **지원 내용** : 1인당 60만 원 한도의 심리치료비 및 교육지원비(학원비 포함)

지원 기업 효성

건강한 미소를 위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시설 이용 장애인을 미소원정대가 찾아 갑니다. 전문의가 구강검진, 간단한 치과치료, 한방치료, 재활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장애인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고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기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 **지원 횟수** : 연 6회
- **지원 내용** : 진료 제공(치의학과, 한의학과, 재활의학과), 구강관리 세트 제공, 건강관리 방법 교육
- **지원 기준** : 구강검진 등 이동 진료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 장애인복지기관(시설)

지원 실적

지원자 수	276명(1차 : 48명, 2차 : 39명, 3차 : 21명, 4차 : 51명, 5차 : 48명, 6차 : 69명)
지원 대상 연령	10대 이하(10명),10대(48명), 20대(58명), 30대(41명), 40대(38명), 50대(44명), 60대 이상(37명)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지적(135명), 지체(23명), 뇌병변(46명), 발달(7명), 시각(2명), 정신(2명), 언어(2명), 비장애(59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172명), 2급(36명), 3급(5명), 4급(3명), 6급(1명), 비장애(59명)

지원 기업 신한은행 SHINHAN BANK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희망보따리는 장애자녀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미뤄두었던 물건을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이 선택한 물건은 기저귀와 같은 위생용품에서 식료품, 의류까지 다양했습니다. 비장애 형제를 위한 선물을 구입할 수도 있어서 모처럼 풍성한 연말이 됐습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20가구
- **지원 시기** : 연말
- **지원 내용** : 1인 100만 원 한도의 물품 구입비용 지원

지원 기업 HYUNDAI MOBIS

장애는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참 배우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어린이들. 장애와 다름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는 내용의 동화책을 제작하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비치했습니다.
어린이가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전국 2,000여 개 지역아동센터
- **지원 내용** : 장애인식개선 동화책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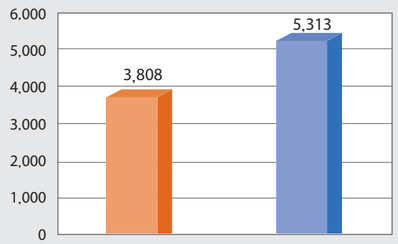
지원 기업 HYUNDAI MOBIS

모금 활동 보고

2014년 한 해 동안 **5,313**명의 시민과 **256**곳의 단체, **197**개의 기업이 푸르메재단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2013년보다 약 **3.5%**가 증가한 **10,556,828,671**원이 모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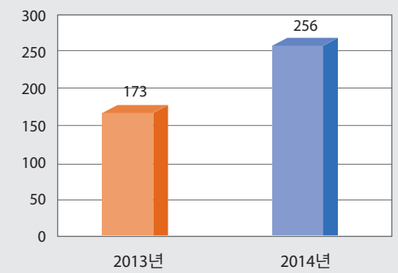
2013년 VS 2014년 모금 현황

개인 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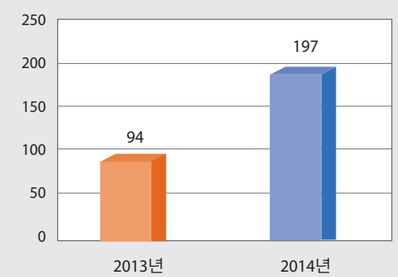
39.5% 증가

단체 기부자



48% 증가

기업 기부자



109.5% 증가

일시 VS 정기 기부 비율

7% 정기 **738,506,799**원

93% 일시 **9,818,321,872**원

캠페인/ 모금 활동 결과

캠페인 41회 **907,141,611**원

- 만원의 기적 캠페인 **25회, 870,749,111**원
-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 **7회, 34,774,500**원
- ARS 기부데이 캠페인 **9회, 1,618,000**원

함께한 활동 4회 **268,672,500**원

- 미라클 런 with 동아일보 **31,420,000**원
- 굿액션 by 션 with 해피빈 **126,007,500**원
- 기적의 책 with 교보문고, 동아일보 **51,165,000**원
- 은총 철인 3종 대회 with 한국지역난방공사, 철인3종경기연합회 **60,080,000**원

기업 참여 결과

모금에 참여한 기업

- **2014년 참여한 기업 197개 ⇨ 109.5% 증가**
- 2013년 참여한 기업 94개

새롭게 참여한 기업

- **2014년 참여 기업 111개 ⇨ 126.5% 증가**
- 2013년 참여 기업 49개

1천만 원 이상 기부한 기업

- **2014년 참여 기업 23개 ⇨ 18% 감소**
- 2013년 참여 기업 28개

최고 금액 기부 기업

- 네오플 **3,50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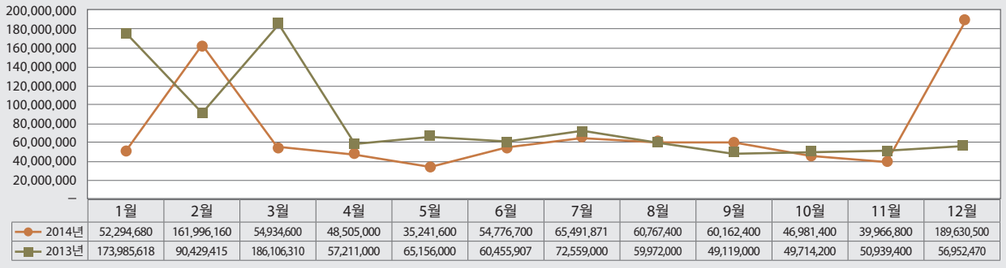
- 기부금영수증 발급 **6,401**건
- 감사물품 발송 **10,603**건
- 감사문자 발송 **2,902**건
- 기획 강연 **2**회
- 티켓나눔 **4**회

션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캠페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365일 기부캠페인'

'션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은 2012년 2월부터 시작된 푸르메재단의 대표적인 모금 캠페인입니다. 홍보대사인 가수 션의 제안으로 시작된 '만원의 기적'은 하루 1만 원의 나눔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3,283명의 기부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연예인들이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은 마라톤, 철인3종 경기, 콘서트 등의 '참여형 기부'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1만 원씩 참여하는 '만원의 기적', 1천 원씩 참여하는 '천원의 기적', 월 1만 원씩 참여하는 '만원의 기적 주니어'가 있습니다.

2014년 모금액
870,749,11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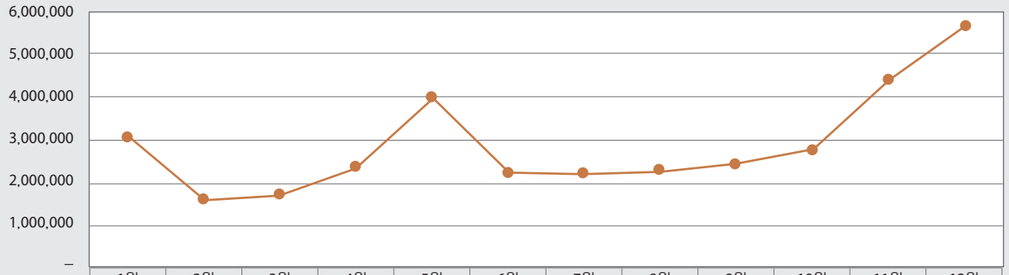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52,294,680	161,996,160	54,934,600	48,505,000	35,241,600	54,776,700	65,491,871	60,767,400	60,162,400	46,981,400	39,966,800	189,630,500
2013년	173,985,618	90,429,415	186,106,310	57,211,000	65,156,000	60,455,907	72,559,000	59,972,000	49,119,000	49,714,200	50,939,400	56,952,470

이지선과 함께하는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

'어린이재활병원을 함께 지을 천사 1,000명을 찾습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지만 희망의 메신저가 된 홍보대사 이지선 씨. 2013년 11월부터 장애어린이를 위해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잡아 준 따뜻한 손이 절망 속의 이지선 씨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장애어린이들과의 손잡기가 희망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262명의 기부자가 참여하고 있는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은 2014년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지선 씨가 등장한 웹툰(6회)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 웹진을 통해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 모금액
34,77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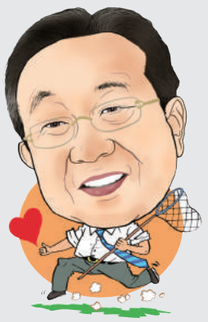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3,073,500	1,594,000	1,710,000	2,390,000	4,010,000	2,220,000	2,200,000	2,250,000	2,395,000	2,800,000	4,432,000	5,700,000

더미라클스
누군가에게는 책임, 우리에겐 특권

푸르메재단 고액기부자 모임인 '더미라클스'가 2014년 12월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더미라클스'는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로 운영됩니다.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박점식 님(천지세무법인 회장), 이철재 님(전 쿼드디맨션스 대표), 가수 션(홍보대사), 정혜영 님(연기자)이 초대 회원이 되었습니다. '더미라클스' 회원이 되면 기부뿐 아니라 정기모임을 통해 봉사,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대 더미라클스 회원 소개



박점식 님

이철재 님

션, 정혜영 부부

2014년 12월 2일 진행된 더미라클스 발족식

함께해서 즐거운 나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4년에는 다양한 모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푸르메재단은 80여 년 전통의 풀코스만 있던 동아국제마라톤에 10Km 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기부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과 공동으로 '굿액션 by 션' 캠페인을 진행해서 누리꾼이 기부한 '콩'만큼 홍보대사 션이 달리는 행사를 펼쳤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는 큰 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달린다, 미라클런 '서울챌린지10K'

21명의 미라클맨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뚝섬에서 잠실까지 10km 마라톤 코스를 달렸습니다. 미라클맨들은 자신을 응원할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유니폼에 이름을 적고 달렸습니다. 미라클맨은 완주하게 되면 자신이 실행할 착한 공약을 내세워 많은 서포터즈를 참여시켰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 **행사일** : 2014년 3월 16일
:: **미라클맨 참여자** : 21명 (김재식, 황승환, 신헌철, 강재형, 홍기대, 박지훈, 엄홍길, 고범진, 손범규, 김재성, 전홍철, 션, 남하영, 김소용, 백경학, 김경선, 최은지, 최종길, 한일웅, 채춘호, 김진오)
:: **서포터즈 참여자** : 1,220명
:: **모금액** : 31,420,000원

콩 심은 데 션 나고, 션 심은 데 기적난다 '굿액션 by 션'

'누리꾼이 기부한 만큼 션이 달린다.' 라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이용하는 누리꾼이 자신이 가진 콩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하면 거리로 환산하여 션이 달리는 미션 완수 캠페인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악동뮤지션, 태양, 위너 등 많은 연예인들이 응원 메시지를 사이트에 올렸고 경매를 통해 젊은 시민들의 온라인 기부를 유도했습니다.

:: **캠페인 시작일** : 2014년 5월 28일
:: **캠페인 사이트** : http://event.happybean.naver.com/goodaction
:: **모금액** : 126,007,500원(*12월말 기준) <콩 1개 = 100원 = 1미터>

책 한 권, 벽돌 한 장 '기적의 책' 캠페인

책 한 권이 판매될 때마다 1천 원이 푸르메재단에 기부되는 '기적의 책' 캠페인을 교보문고, 동아일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교보문고 전문가들이 월 20권의 양서를 선정하고 동아일보에서 캠페인 안내를 해줬습니다. 전국 교보문고 14개 매장에 '기적의 책' 전용 서가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기적의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월 유명인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초대하여 사인회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 **캠페인 시작일** : 2014년 5월 17일
:: **2014년 캠페인 대상 도서 수** : 180권
:: **모금액** : 51,165,000원 (*2014년 말 기준)

100만 명의 은총이를 위해 달린다 '제2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 경기대회'

한국의 팀호이트로 불리는 아버지 박지훈 씨와 아들 박은총 군의 이름을 딴 철인3종 경기대회로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총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마포구 등의 후원으로 한강변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푸르메재단에 기부되는 행사입니다.

:: **행사일** : 2014년 9월 14일
:: **참가자 수** : 약 1,500명 (선수 822명, 운영/심판 200명, 봉사자 200명, 관계자 250명)
:: **모금액** : 60,080,000원

고사리 손의 정성과 팬들의 특별한 선물

첫 번째 이야기

직접 만든 도자기를 판매하고, 수익금 33,300원을 기부한 주필홍 어린이 (1.16)

세뱃돈 1,449,370원을 모아 기부한 숭의초등학교 45회 졸업생 일동 (1.28)

돌기부에 이어 두 번째 생일에도 365,000원 기부에 동참한 홍하율 어린이와 아버지 (3.13)

씨크릿 전효성의 생일을 맞아 7,310,000원을 기부한 전효성과 팬클럽 슈퍼스타 (10.13)
(사진제공 : TS엔터테인먼트)

돌을 맞아 365,000원을 기부한 박주하 어린이와 부모님 (10.17)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용돈 496,000원을 모아 기부한 꿈모리유치원 친구들 (10.29)

1안타에 1천 원! 800,000원을 기부한 NC다이노스 나성범팬클럽 (12.8)

거리에서 491,000원을 모금해서 찾아온 고양 신원중학교 2학년 2반 학생들 (12.18)

시민이 만들어 준 값진 모금 행사

두 번째 이야기

서울디지털대학교 나눔 경매
21,370,000원 기부 (4.3)

서울문화재단 나눔 경매
2,687,320원 기부 (7.1)

이지선 강연 모금, 한국MDRT 회원
10,210,000원 기부 (11.7)

션과 이지선의 나눔 토크콘서트
수익금 1,680,000원 기부 (12.6)

하림과 집시앤피쉬 오케스트라, 푸르메와 떠나는 세계 음악 여행,
수익금 972,340원 기부 (10.11)

<정호승의 토크콘서트> 내가 없으면 당신이 없습니다, 수익금 2,925,000원 기부 (11.12)

남 몰래 보내온 정성과 스타들의 동참

세 번째 이야기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일본에서
칫솔을 보내주신 노무라 할아버지 (5.22)

새벽부터 종이를 주워 판매금 117,600원을
기부한 푸르메 아침을 여는 천사들 (6.9)

틈틈이 생긴 잔돈을 꾸준히 모아 215,230원을
보내주신 남양주시 김광호 님 (11.4)

대한민국 최고의 배구선수, 김연경과 한송이
각 3,650,000원 기부 (5.28)

국가대표 귀염둥이 가족, 송일국·대한·민국·
만세 3,650,000원 + 4만 원 기부 (10.30)

오늘 더 행복한 기부 가족, 션·하음·하랑·
하엘·하율 3,650,000원 기부 (10.30)

얼굴만큼 마음도 멋진 배우, 다니엘 헤니
(Daniel Henney) 3,650,000원 기부 (11.3)

나쁜 녀석 NO! 진짜 착한 배우, 박해진
3,650,000원 기부 (11.21)

카라얀도 극찬한 최고의 성악가, 조수미
휠체어그네 2대 기부 (12.29)

간삼건축 ›› 어린이재활병원 설계 재능기부 (1.22)

우리은행 종로4가지점 ››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 (5.22)

현대모비스 ›› 장애아동 맞춤형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 (7.2)

YG ENTERTAINMENT ›› 따뜻한 밥차 행사 (12.12)

(주)오비맥주 ››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2.7)

SPC ›› 장애어린이 ·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5.8)

효성그룹 ›› 장애아동 · 청소년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 (7.23)

넥슨 컴퍼니 ››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약정 및 기부 (12.23)

테크하임 ›› PACS(의료영상처리시스템) 설비 기부 (3.18)

현대엘리베이터 ›› 어린이재활병원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약정 (6.2)

한국지역난방공사 · 철인3종경기연합회
›› 은총철인3종경기대회 참가비 전액 기부 (9.14)

보령중보재단 ››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지원 (12.3)

미래병원컨설팅 ›› 어린이재활병원 경영컨설팅 재능기부(김재선) (4.16)

교보문고 ›› 14개 매장에서 기적의 책 캠페인 시작 (5.17)

기업은행 ››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지원 (12.4)

- **삼화모터스**
  (푸르메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 **신한은행**
  (장애인 구강건강 지원사업)
- **재단법인외환은행나눔재단**
  (푸르메재활센터 치료기기 지원)
- **에드링턴코리아**
  (장애어린이 · 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

몸이 불편한 아이가 부단한 노력 끝에 한 걸음을 떼고 연필로 자기 이름을 썼을 때 기뻐하는 모습, 그런 아이를 보며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푸르메재단의 10년 후를 그려가고 싶습니다. 희망의 홀씨를 뿌리겠다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Part 04 푸르메 가족 이야기

푸르메재활센터
PURME REHABILITATION CENTER

통합 의료서비스의 중심 푸르메재활센터

2007년 푸르메나눔치과로 시작한 의료사업을 2012년부터 푸르메재활센터를 만들어 확대하였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의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치과의원, 비장애인까지 이용 가능한 한의원(2014년말 폐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르메재활의원

푸르메재활의원은 장애어린이의 신체, 정신, 잠재역량이 최대한 발달되도록 외래진료와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료사, 간호사가 협업을 통해 장애 상태에 맞는 치료목표를 세워 특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장애어린이 20,967명을 진료해 35,315건을 치료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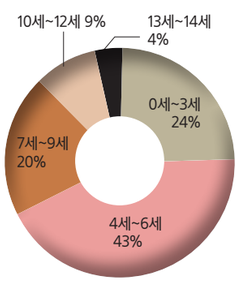
진료 개요

치료 대상	만 12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치료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30~13:30)
치료 방법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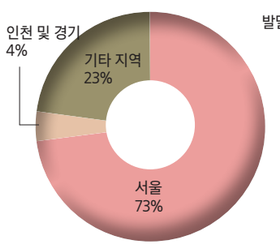
운영 현황 (2014. 1. 1 ~ 2014. 12. 31)

구분	결과
치료 건수	18,378건
진료일	241일
수입	709,647,7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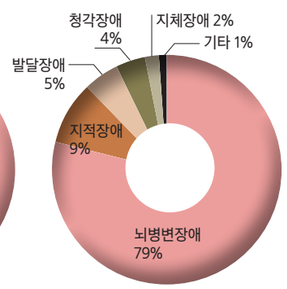
이용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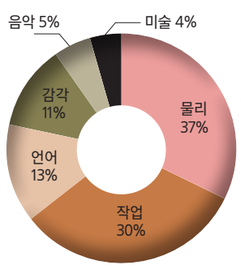
이용자 연령



이용자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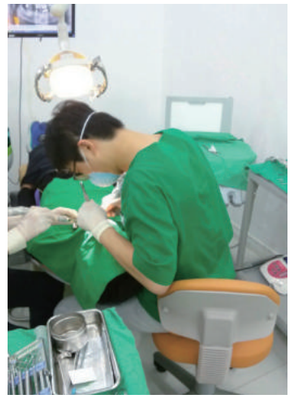


이용자 장애 유형



치료 형태

푸르메치과



푸르메치과는 민간 최초의 장애인전용 치과입니다.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의 제약으로 치과치료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하면 구강질환이 악화돼 고통은 심해집니다. 푸르메치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치료비 지원사업과 치료비 할인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해 장애인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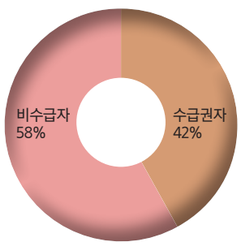
진료 개요

치료 대상	등록 장애인
치료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30~13:30)
진료 예약	전화 예약 (02-6395-7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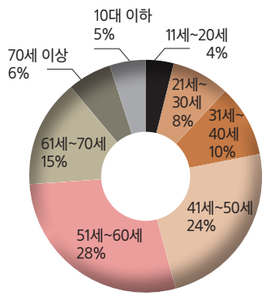
운영 현황 (2014. 1. 1 ~ 2014. 12. 31)

구분	결과
신규 환자수	449명
진료 건수	4,291건
진료일	241일
수입	394,863,39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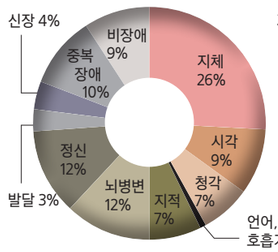
이용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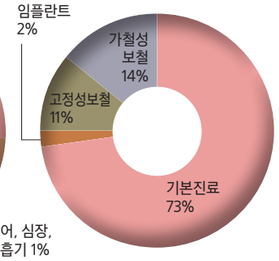
의료보장 형태



이용자 연령



이용자 장애 유형



치료 형태

푸르메한의원

푸르메한의원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한방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소아 한방재활치료 및 뇌혈관 질환 후유증 및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는 침, 뜸, 한약, 교정치료를 진행했습니다.

2007년 한방어린이재활센터로 첫 걸음을 시작한 푸르메한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용자 감소와 의료진 충원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불가피하게 2014년 말 폐원하였습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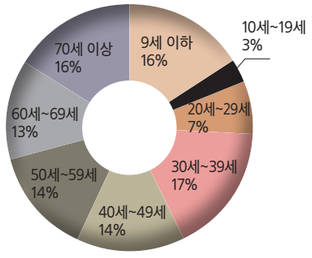
진료 개요

치료 대상	장애인, 비장애인
치료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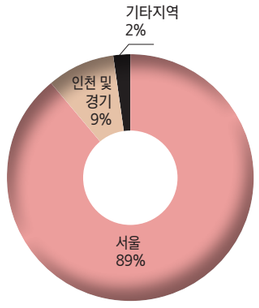
운영 현황 (2014. 1. 1 ~ 2014. 12. 31)

구분	결과
치료 건수	4,262건
진료일	241일
수입	134,689,8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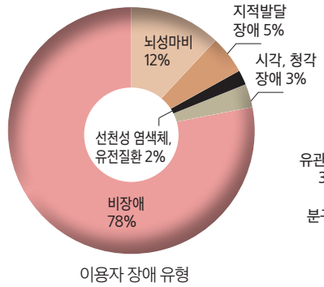
이용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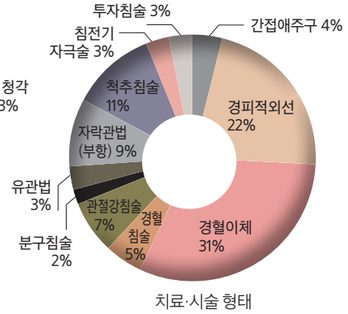
이용자 연령



이용자 거주지



이용자 장애 유형



치료·시술 형태

2014년 주요 활동

5. 16 푸르메 어린이날
페이스페인팅, 쿠키만들기, 악기전시 체험 부스와 마술공연, 악기연주를 통해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 13 아딸 오감만족 요리교실
떡볶이 전문회사 아딸과 함께 다양한 재료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빙수와 주먹밥을 만들며 맛있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0. 14 삼성SDS 사회공헌활동
삼성SDS 임직원들이 푸르메재활센터 치료기구와 치료실을 소독하고 세척하는 자원봉사에 나서 청결한 치료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2. 15 제2회 미술치료 전시회
미술치료를 하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유화, 석고 손, 테라코타 랜턴, 설치 작품 등 79여 점을 선보여 함께 감상했습니다.

12. 17 푸르메 작은 음악회
캐롤메들리 공연을 비롯해 첼로연주, 하모니카 합주, 난타, 마술 등을 펼쳐 푸르메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행복씨앗을 나누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Gwacheo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와 자립,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7월 과천시가 건립하고 푸르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100여 개의 고품격 서비스로 과천시 장애인 2,166명 중 약 43%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개요

이용 인원(연)	238,147명
이용 건수	19,484건
주요 사업	:: 상담사례관리사업 :: 기능강화지원사업 :: 직업지원사업 :: 가족문화복지사업 ::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사업 ::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위탁사업(장애아동·청소년 방과후교실, 장애인복지일자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이용자 연령

연령	인원	비율
합계	**932명**	**100%**
0-9세	68명	7.3%
10-19세	86명	9.2%
20-29세	61명	6.6%
30-39세	39명	4.2%
40-49세	88명	9.4%
50-59세	111명	11.9%
60-69세	154명	16.5%
70세 이상	325명	34.9%

⋮ 과천시는 장애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용자의 약 51%가 60세 이상 노인장애인입니다.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이용자의 비율이 52.4%으로 높습니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의 통합적인 이용자 관리와 지원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용자 장애 유형

장애유형	인원	비율
합계	**932명**	**100%**
지체장애	268명	28.8%
뇌병변장애	115명	12.3%
지적장애	104명	11.2%
청각장애	70명	7.5%
시각장애	67명	7.2%
자폐성장애	51명	5.5%
정신장애	23명	2.5%
중복장애	15명	1.6%
신장장애	13명	1.4%
심장장애	6명	0.6%
장/요루장애	6명	0.6%
언어장애	3명	0.3%
호흡기장애	2명	0.2%
간장애	1명	0.1%
간질장애	1명	0.1%
미등록	187명	20.1%

2014년 주요 활동

3.20~21 직업적응훈련생 취업연수
직업영역을 알아보고 취업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주로 떠난 연수. 자립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4. 16 제34회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축제'
지역의 어린이들이 장애인은 어떤 삶을 살고 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듣고 만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 19 개관 3주년 기념 '함께나눈 행복씨앗, Smart Tomorrow'
장애인과 지역주민, 유관기관 150여 명과 함께한 기념행사. 스마트한 소도시형 대표 복지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10. 22 참여연극 '안놀아'
아이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가족과 부모님은 아이의 시선으로 자녀의 고민을 풀어가는 뜻 깊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11. 14 전래놀이 활용 '실버심리운동'
노인장애인들이 놀이를 통해 추억을 되살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며 몸을 움직여보는 신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11. 19~20 전국 장애인복지관 '스마트워크 컨퍼런스'
영상 기획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60명이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종로장애인복지관
JONGNO COMMUNITY WELFARE CENTER

서울의 중심! 장애인복지의 중심! 종로장애인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가족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2014년에는 장애인의 재능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여가와 사회통합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기능 사업과 일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직업 활동을 도왔습니다.

이용 개요

이용 인원(연)	118,650명
이용 건수	54,825건
주요 사업	:: 사례관리 및 가족기능 강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확대 ::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생활 지원 ::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용자 연령

연령	인원	비율
합계	**1,120명**	**100%**
7세 이하	43명	3.84%
8-13세	106명	9.47%
14-19세	204명	18.21%
20-29세	375명	33.48%
30-39세	68명	6.07%
40-49세	69명	6.16%
50-64세	110명	9.82%
65세 이상	100명	8.93%
미상	45명	4.02%

종로구는 성인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20대 이상 장애인이 95%이고 60세 이상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 성인장애인 이용자 68.5%에게 직업적응훈련과 성인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 미상은 개인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용자 장애 유형

장애유형	인원	비율
합계	**1,120명**	**100%**
지적장애	452명	40.36%
뇌병변장애	151명	13.48%
자폐성장애	140명	12.50%
시각장애	109명	9.73%
지체장애	91명	8.13%
청각장애	65명	5.80%
정신장애	31명	2.77%
신장장애	13명	1.16%
언어장애	6명	0.53%
간질장애	3명	0.27%
호흡기장애	1명	0.09%
장/요루장애	1명	0.09%
안면장애	1명	0.09%
미등록	56명	5.00%

종로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40.36%가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평생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발달장애아동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성인발달장애인 문화학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 주요 활동

4. 12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식개선캠페인에서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며 참여했습니다.

5. 16 운동기능팀 이용자 나들이
물리·작업·언어치료, 체력단련실 이용자들이 도심을 벗어나 벽초지 문화수목원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8. 1 푸르메오케스트라 활동지원
시각·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악기교육을 지원하는 푸르메오케스트라에서 단원들이 연주 실력을 뽐냈습니다.

9. 18 사진공모전 '사람, 사람, 사람' 시상식
바라봄사진관과 함께하는 사진 전시회에서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10. 14 푸르메힐링지압센터 개소
시각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중도중증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해 푸르메힐링지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2. 18 종로송년예술제 '따뜻한 메아리'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이 문화공연을 공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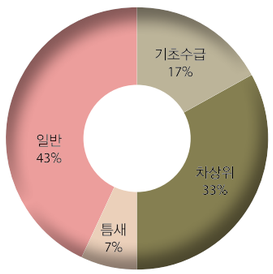
꿈꾸는 아이들의 공간, 종로아이존

종로아이존은 푸르메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발달장애아동·청소년 정신보건기관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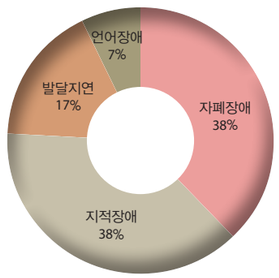
이용 개요

※ 2014년 12월 기준

의료 보장 형태



장애 유형



주요 사업 현황

종로아이존은 발달장애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재활 서비스와 가족역량강화 서비스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심리 평가	언어 치료	인지학습 치료	놀이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특수 체육	학교준비 및 적응프로그램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아동 수(명)	98	873	809	512	308	468	336	199	79	180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부모집단 상담	부모긍정심리 프로그램	양육자 정신건강상담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아동 수(명)	128	61	85	24	23

2014년 중점 사업

발달장애아동 학교준비 및 적응 프로그램

종로아이존은 이화여대 및 나사렛대와 협력하고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와 연계해 취학을 앞둔 발달장애아동이 학교생활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학교준비 및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근거중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행복한 일터, 행복한베이커리&카페

푸르메재단에서 운영하는 행복한베이커리&카페는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행복한 꿈을 키우는 일터입니다. 11명(지점별 2~3명)이 고용되어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복한베이커리&카페는 기업과 지자체, 복지시설이 푸르메재단과 손잡고 만들어가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 모델입니다. SPC그룹은 인테리어 및 설비, 소모품, 직원교육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입점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덕의 집 소울베이커리에서 중증장애인이 우리밀과 우리쌀로 만든 건강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점 개요

	푸르메센터점	인재개발원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점	시립은평병원점	서울도서관점
개점일	2012.9.26	2013.5.15	2013.10.29	2013.12.19	2014.4.3
영업 장소	서울 종로구 신교동 66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1층	서울 서초구 서초1동 391 인재개발원 다솜관 1층	서울 강동구 고덕동 289 온조대왕체육관 1층	서울 은평구 은평시립병원 1층	서울 중구 제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5층
운영 시간	월-금 8:00~19:00 토 9:00~18:00	월-금 8:00~18:00	월-금 9:00~21:00 토 9:00~19:00	월-금 9:00~20:00	화-금 9:00~20:00 토-일 9:00~18:00
연락처	02-6395-7048	02-521-4419	070-4131-7058	070-7836-2719	02-732-1787
2014년 월 평균 매출액	11,000,763원	13,845,963원	8,948,325원	-	10,385,727원

2014년 주요 활동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제1회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개점 2주년 기념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스킬부문 및 창작 음료부문)를 열어 숨은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프로 바리스타로서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춤형 케이터링 서비스

식사를 겸한 미팅, 모임, 세미나 등에서 신선한 커피와 쿠키, 베이커리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문의 : 02-6395-7048)

고품질 커피 원두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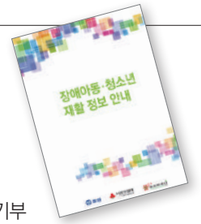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고품질 원두를 블렌딩한 커피 원두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00g 5천 원 판매)

1월

1.14 • 『장애아동·청소년 재활 정보 안내』 책자 발간

1.22 • 간삼건축, 어린이재활병원 설계비 4억 원 재능기부

1.29 • 마포구청과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실시협약 체결



2월

2.4 • 가수 션, 1만km 완주 기념 '만원의 기적 션 기금' 1억 원 기부

2.7 • (주)오비맥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치료기금 10억 원 기부

2.22~3.3 • 임직원 해외 연수 (독일 장애인 재활시설)

3월

3.5 • 테크하임(주), 어린이재활병원 PACS(의료영상처리시스템) 기부협약

3.16 • 제85회 동아마라톤 서울챌린지 10K 미라클런 개최

3.26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 (마포구 상암동)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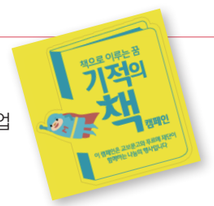
4.3 •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서울도서관점 개점

5월

5.8 • SPC와 함께하는 2014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지원사업 〈내 몸에 꼭 맞는 희망맞춤 보조기구〉 전달식

5.17 • 교보문고·동아일보와 함께하는 '기적의 책' 캠페인 론칭

5.29 •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나눔경매전시 〈예술로 희망을 선물해요〉



6월

6.2 • 현대엘리베이터, 병원용 엘리베이터 1억 원 기부 약정

7월

7.7 • 푸르메친구들 어린이 그림책 시리즈 〈병하의 고민〉 출간

7.22 • 효성그룹과 함께하는 장애아동·청소년 의료재활 및 가족 지원기금 전달식

8월

8.31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함께하는 미소원정대 진행 (동대문쪽방상담센터)

9월

9.14 • 제2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 경기대회 개최

10월

10.3 • 제1회 이승휴문화상 수상 (사회봉사부문)

10.11 • 푸르메 공유 〈하림, 집시앤피쉬 오케스트라 : 집시의 테이블〉 개최

10.30 • 배우 송일국·가수 션 가족, 송도사랑 마라톤 10km 완주 기념 '만원의 기적' 동참

11월

11.4 •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2014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보조기구 전달식

11.15 • 2014 푸르메재단 가족 연수 〈참 좋은 인연, 우리는 푸르메 가족입니다〉

12월

12.2 •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고액기부자 모임 더미라클스(The Miracles) 발족식

12.23 • 넥슨 컴퍼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200억 기부 약정 및 병원 명칭 확정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2.29 • 성악가 조수미, 장애어린이 위한 휠체어 그네 2대 선물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김성수 이사장(우리마을 촌장 / 前 성공회대 총장)
연세대 신학과, 성공회 성미카엘 신학원에서 공부한 후 1964년 대한성공회 사제서품을 받고 대한성공회 초대 관구장을 역임한 뒤 성공회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습니다. 현재는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강화 우리마을 촌장입니다.

강지원 대표(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서울대 정치학과, 1976년 18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뒤 전주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으면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 문화부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정식 대표((주)서울문화사 여성경제신문 대표이사 / 前 CBS 사장)
서울대 사범대 지리학과 졸업 후 CBS에 입사, KBS 기자로 일한 뒤 다시 CBS로 돌아와 정치부장,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노컷뉴스 회장, 뉴스1 사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문화사 여성경제신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용해 대표(서강대 신학대학원장)
전남대 법학과, 1986년 한국예수회에 입회했습니다. 서강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신학과 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서강대 신학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문규 감사(태율회계법인 이사)
외국어대 경제학과, 서울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공부한 후 현재 태율회계법인 이사입니다. 풀무원 사외이사를 역임한 뒤 (주)에스제이엠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감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워싱턴대 회계학, 뉴욕대 로스쿨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뉴욕 딜로이트앤투시에서 국제조세 매니저를 거쳐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송재용 이사(푸르메재활센터 경영본부장 / 前 하이닉스 사외이사)
서강대 무역학과, 고려대학원 경영학과 및 MIS 전공 후 외환은행 여의도광장지점장 및 독일외환은행 법인장, 하이닉스 사외이사 및 지식경제부선정 무역부문 국가지식경제전문가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푸르메재활센터 경영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이사(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前 동아일보 회장)
서울대 정치학과 및 대학원 졸업 후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 단국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택 스님(부산 고심정사 주지 /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1972년 성철스님의 문하로 출가했습니다. 1987년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장경각 대표, 조계종 총무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국정 이사(前 SBS 대표이사)
서울대 사학과 졸업 후 1970년 KBS PD로 입사, SBS 제작본부장 및 편성본부장을 거쳐 SBS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습니다.

문창진 이사(CHA의과대학교 부총장 / 前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
서울대 사회학, 시카고대학원 사회학박사, 보건복지부 공보 총무과장을 거쳐 사회복지정책실장, 차관,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CHA의과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윤태 이사(국립교통재활병원 부원장 / 가톨릭대학 의정부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가톨릭의대에서 공부하고 1991년 재활의학전문의가 된 이후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국립교통재활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국립재활원 CBR 공공재활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이사(아시아엔 발행인 / 前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영어과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입사한 뒤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아시아엔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인숙 이사(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 한양대 겸임교수)
한양대 건축공학과, 성균관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뮌헨대와 뮌헨공대에서 미술사학 및 문화재학을 연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국제레저센터 Willows, 상하이 세계명인성 마스터플랜, 경기도 광덕사 등을 설계했습니다.

백경학 상임이사(前 CBS, 동아일보 기자/ 前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 대표)
연세대 사학과 졸업 후 CBS와 한겨레신문,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독일 뮌헨대 정치학과에 객원연구원으로 수학했습니다. 2010년 연세사회봉사대상 수상, 2014년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동아일보가 선정한 '2020년을 이끌어갈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푸르메재단을 잘 알리는 사람들

엄홍길 | 산악인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마음으로 푸르메 병원이 건립되는 그날까지 도전!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산악인으로 세계 최초로 16좌를 완등했습니다. 동상 때문에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게 된 엄홍길 대장은 "나도 장애인"이라면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 특히 장애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청소년 백두산 등반, 네팔미소원정대, 한라산 등반, 성곽길 탐험 프로젝트, 책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기적의 책 캠페인 '책 읽는 미라클맨' 강연에 함께하며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션 | 가수

사랑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가수에서 많은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되길 자처한 션. 전 세계 아이들을 800명이나 후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대한민국 30만 장애어린이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1일 1만 원씩 기부하는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헌신적으로 진행합니다. 철인3종경기, 마라톤, 사이클 등 1만km를 완주해 기부하고 부인 정혜영 씨와 고액 기부자 모임 더미라클스(The Miracles) 초대회원으로서 장애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 작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정성을 모아주세요.

2005년부터 활동한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1호입니다. 뉴욕 마라톤 완주(2009), 서울국제마라톤 완주(2010) 및 이지선 천사기금도 마련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월 11일 참여하는 '기부데이' ARS 캠페인을 진행하고 현재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중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2013년 시작된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성주 | 방송인, **김민국 부자**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만큼 다른 가정의 어린이들도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으로 큰 사랑을 받은 김성주 부자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2013년 12월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김성주, 김민국 부자는 SNS 캠페인 '영웅 망토 릴레이'의 첫 주자로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성주 씨는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 온 푸르메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에게 힘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경덕 | 홍보전문가

장애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지치지 않고 뛰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홍보전문가로 푸르메재단의 공익광고를 제작해 재단이 조금 더 쉽게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원의 기적 토크 콘서트'에 사회자 및 게스트로 참여하고 기적의 책 캠페인 '책 읽는 미라클맨' 강연자로 적극 소통에 나서는 등 대외적으로 푸르메재단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은미 | 가수

장애어린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줄기 햇살이 되어주세요.

최고 가창력을 가진 중견 가수로 콘서트 및 방송 출연을 통해 왕성한 활동 중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열정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은미 씨는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해피에너지(네이버 해피빈)를 직접 진행하고, '만원의 기적 콘서트'에서 열창하는 등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나경은 | 아나운서

장애는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나경은 아나운서는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에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어린이와 함께하면서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장애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푸르메재단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바자회 진행 및 재단 5주년 행사(2010) 사회를 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혜영 | 방송인

아름다운 나눔으로 장애어린이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방송인 황혜영 씨는 남편 김경록 씨와 함께 푸르메재단의 미소원정대(치과 치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기증하고, '작은 음악회'(2011)가 열렸을 때 의류 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김세진 | 수영선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예쁜 병원을 지어주세요.

8세 때 의족으로 단축 마라톤을 완주하고 9세 때 미국 로키산맥 등정, 2009년 19세 미만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3관왕 차지,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한 한국 장애인 수영의 기대주입니다. 선천성 장애로 두 다리가 없고 오른손은 엄지와 약지만 있는 김세진 군(18)은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친 뒤 성균관대 스포츠학과에 최연소 합격했습니다.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널리 알리고 싶다며 공부, 운동, 강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기흥모터스, (재)창문장학회, (주)다산북스, (주)대웅제약, (주)더난콘텐츠그룹, (주)도모컴퍼니, (주)도서출판푸른숲, (주)북이십일, (주)살림출판사, (주)새움출판사, (주)위즈덤하우스, (주)이니스프리, (주)금화PSC, (주)김영사, (주)네오플, (주)넥슨, (주)넥슨코리아, (주)다원스토리, (주)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주)동승통상, (주)동아일보사, (주)동일이엔티, (주)드림호투, (주)메디치미디어, (주)문예출판사, (주)문학동네, (주)미래병원경영컨설팅 김재선, (주)민음사, (주)민음인, (주)밀다원, (주)벤쳐캐슬, (주)비즈마켐, (주)삼립지에프, (주)상현상사, (주)샌드팜, (주)샤니, (주)선인유니텍, (주)성일화학, (주)성현메디텍, (주)세전, (주)스마트북스, (주)스마트플레이스, (주)쌤앤파커스, (주)아모레퍼시픽, (주)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 (주)양철북출판사, (주)에그팜, (주)에드링턴코리아, (주)에스와이글로벌, (주)에스피씨캐피탈, (주)에스피씨클라우드, (주)에이에스엠케이, (주)에치앤파트너스, (주)엔엑스씨, (주)예감, (주)오투스페이스아딸, (주)우리은행종로4가지점, (주)우리은행효자동지점, (주)운잠캐슬, (주)웅진씽크빅 단행본사업자, (주)원창, (주)이앤씨코리아, (주)저스티스이앤씨, (주)제이엠테크, (주)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 (주)짐월드, (주)창비, (주)코이너스인터내셔날, (주)파리크라상, (주)퓨쳐포인트, (주)한경비피, (주)호남샤니, (주)홍성사,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kairos, KB국민은행청운동, PH치과기공소, 간삼건축, 강산건설(주), 광역파워샌딩, 교보생명보험(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생활체육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글담출판사, 꿈초롱빛초롱어린이집, 넥스트웨이브미디어 주식회사, 뉴스토마토, 다연, 도서출판 나무생각, 도서출판 문예춘추사, 도서출판 부키, 도서출판작가정신, 동아공업사, 뜨인돌출판(주), 루비스폴카, 리더스북, 리얼북스, 마리북스, 매드홀릭, 미래산업, 미스터낙지, 미플러스치과 앤 갤러리, 방문천사비지팅엔젤스안양동안지점, 법무법인한누리, 베가북스, 변호사김희찬법률사무소, 비알코리아(주), 사회복지법인 보령중보재단, 사회복지법인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에스피씨행복한재단, 삼립식품,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주), 삼화모터스(주), 상동화(주), 세종서적(주), 소울메이트, 솔로몬산업(주), 스페이스로직Space logic, 시공사, 시연공조테크, 씨오디, 아미스테크놀로지(주), 아트북스, 알프스식품, 애플북스, 에스앤씨로직스(주), 에스앤제이이노베이션, 에스에이치비컨 주식회사, 에스피씨(주), 에스피씨네트워크, 에스피엘(주), 에이바이봄, 열린책들, 와이즈베리, 우리사랑나눔센터, 이상미디어(이상아카데미), 재단법인 외환은행나눔재단, 정광피엔아이주식회사, 제일FG, 주식회사 도서출판아름다운사람들, 주식회사 부키, 주식회사 비즈니스북, 주식회사 비채코리아북스,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앤코, 주식회사 큰사람 씨오엠엠(COMM), 주식회사 프롬북스, 주식회사도서출판센추리원, 주식회사돌베개, 주식회사아리움디자인, 주식회사오피엘코리아, 주식회사인디고, 주식회사조선에듀케이션, 중소기업은행, 중앙북스주식회사, 진바텍, 책이있는풍경, 천지세무법인, 출판명인, 카길코리아 유한회사, 카시오페아, 쿰ENM, 택틱스어학원, 토네이도미디어그룹주식회사, 트란스이스트상사(주), 한국다케다제약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무쇼핑(주)킨텍스, 행복한레오코치, 현대모비스(주),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종합상사, 홍익출판사 **(총 197개)**

단체

서비데코(장순옥), 열매맺는사람들, 용감한 컵케이크, 장인인테리어, 피플두드림, always-gd, ANKIDS, CU, G&M글로벌문화재단, INGMDRT, making friends, MBC 무한도전 팀, Sayonepiano&Management, SPC행복한펀드바자회, YB-518%(태양팬클럽), YISS(용산국제학교), 감삼영어도서관, 건양대, 건축사사무소지오, 경천교회, 골드벨시니어, 골목길, 공평노무법인, 광화문, 교보생명MDRT, 권서폿모데라토, 권지용서포터즈(모데라토), 기흥인터네셔널, 길종합건축, 김병직(리드교육연구원), 김수현닷컴, 꿈모리유치원, 나눔꽃배달, 나린세무회계사무소, 노는가베미술학원, 늘품자연유치원, 다케다제약임직원, 대구메이플베어, 대영청사진, 대원외고28기불어과2반, 대원외고28기중국어8반&영어과10반, 대원외고28기중국어과9반, 대전메이플베어, 더라움치과, 더착한커피 가능점, 더착한커피 가산점, 더착한커피 가재울점, 더착한커피 강동구청점, 더착한커피 강릉솔올점, 더착한커피 강서구청점, 더착한커피 검단점, 더착한커피 경남대점, 더착한커피 고잔신도시점, 더착한커피 광교점, 더착한커피 광흥창점, 더착한커피 구로점, 더착한커피 구리점, 더착한커피 김포사우점, 더착한커피 난향점, 더착한커피 논현점, 더착한커피 당진점, 더착한커피 대림점, 더착한커피 대치점, 더착한커피 독산점, 더착한커피 동아대점, 더착한커피 등촌점, 더착한커피 망원점, 더착한커피 미리내점, 더착한커피 봉화산점, 더착한커피 부산남천점, 더착한커피 부산수안점, 더착한커피 부산시청점, 더착한커피 부천상동점, 더착한커피 부평점, 더착한커피 상수점, 더착한커피 서산동문점, 더착한커피 서산점, 더착한커피 서울역점, 더착한커피 성균관대점, 더착한커피 수원금곡점, 더착한커피 수원법원점, 더착한커피 수원성대점, 더착한커피 신림점, 더착한커피 신촌점, 더착한커피 안산점, 더착한커피 야음점, 더착한커피 양주덕정점, 더착한커피 양천향교점, 더착한커피 역삼점, 더착한커피 왕십리점, 더착한커피 용두점, 더착한커피 운정점, 더착한커피 울산대점, 더착한커피 울산점, 더착한커피 의정부점, 더착한커피 이대점, 더착한커피 이수점, 더착한커피 인천서구청점, 더착한커피 일산점, 더착한커피 전주점, 더착한커피 중동점, 더착한커피 중앙대점, 더착한커피 중화역점, 더착한커피 진주점, 더착한커피 철산점, 더착한커피 철원점, 더착한커피 청주가경점, 더착한커피 평내점, 더착한커피 혜화점, 더착한커피 홍대KT점, 더착한커피 화곡점, 독수리, 동광중학교, 디자인하루, 로즈베이, 마포메이플베어 캐나다문화어학원, 멋진스케이터김진서팬카페, 메이플베어어학원(주)분당점, 메인스튜디오, 명문한의원, 모애랑, 목동메이플베어, 물리치료사모임, 미가로 스튜디오, 미래신경과의원, 미엘르의원, 본동삼성래미안입주자, 부천메이플베어, 블레싱포유, 블루베리, 비젼하우스, 빅뱅콘서트관객, 사단법인은빛날개, 사랑할때알아야할것들, 삼립신입39기일동, 삼성전자환경안전센터, 삼해상사(주), 서대문박문관모금함, 서울디지털나눔경매행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문화재단, 서울사대부설여중, 서천여고, 성현교회(최재호목사님), 션&이지선 토크콘서트, 션미라클서포터즈, 션와츠사이클링(서울부산라이딩), 소화어린이집, 송도메이플어학원, 송림정식당, 송파메이플베어, 수치과기공소, 숭의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45회졸업생일동, 스마일홀릭, 스튜디오팻캣, 신스커피하우스, 신원중학교2학년 2반, 신춘가곡향연현장모금, 신헌철미라클서포터즈, 아트랩, 아현교회청년부, 아현장로교회 유초등부, 언제나대성, 얼웨이즈지디, 엑시무,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학생일동, 영키영어작은도서관, 옛신(어린이문학), 옥인교회, 온누리교회, 옷걸이옴므, 용인메이플베어, 우리은총이팀, 우성(화성모), 웰빙마트, 이우헌(주)컴앤에스, 이종복투자클럽, 이철희중앙창문외과, 일산코앤키한의원, 장애인경채7기, 전효성&슈퍼스타,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좋은사람, 지누션팬모임, 참빛교회, 채춘호서포터즈, 책의노래서율, 천안신방중학교3학년6반, 철도총동문, 청계중앙교회, 청구회, 카페퐁당, 캐나다교육원(주), 키스더에스프레소, 통의동우체국, 통인감자탕, 평촌메이플베어, 평촌현대서비스, 퐝당클럽, 표창원과함께하는범죄없는세상만들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원장회일동, 푸르메_인테리어디자인, 푸르메기획강연'공유', 하동관, 학사마을, 한국MDRT협회, 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 한국문화교육진흥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군소망교회, 해피빈, 행복한베이커리&카페, 형제비철, 홀트아동복지회, 화도광성교회청소년부, 휴먼디지탈, 휴먼케어 **(총 256곳)**

개인

3루수, DEBORA BO KIM, Esther Pan, HUHNAMHUN, JIN MEI, LEE KAREN, SFSL&S, SS501박정민, WU MINH, 가온&라온, 가장미, 강가람, 강경남, 강경민, 강경희, 강경희, 강광훈, 강귀만, 강기문, 강나영, 강나윤, 강난희, 강다슬, 강다정, 강다형, 강대경, 강대인, 강동규, 강동열, 강동우, 강동철, 강동훈, 강리나, 강문희, 강미경, 강미경, 강미란, 강미애, 강미진, 강민정, 강민지, 강민철, 강민형, 강병옥, 강보람, 강보향, 강석범, 강석용, 강석철, 강석철, 강석현, 강석홍, 강선상, 강선영, 강선이, 강성찬, 강성희, 강성희, 강세환, 강세희, 강소희, 강수권, 강수연, 강순남, 강순이, 강승우, 강신재&최정윤, 강신혜, 강연주, 강오진, 강온유, 강유빈, 강윤경, 강윤경, 강윤성, 강윤재, 강은비, 강은영, 강은주, 강은택, 강은희, 강인황, 강인후, 강일남, 강재민, 강전희, 강정, 강정미, 강정욱, 강정훈, 강종모, 강주석, 강주영, 강주호, 강주홍, 강주희, 강준혁, 강지수, 강지원, 강지원, 강지원, 강지현, 강지호, 강지훈, 강지훈, 강창권, 강채롱, 강철, 강철, 강태영(화인오카리나), 강태의, 강태후, 강필규, 강하영, 강한나, 강한나, 강한빛, 강한석, 강현, 강현순, 강현아, 강현욱, 강현주, 강현주, 강현태, 강현호, 강형동, 강형민, 강혜련, 강혜연, 강혜영, 강혜영, 강혜정, 강혜진, 강호경, 강호민, 강호성, 강호출, 강효주, 강희경, 강희숙, 강희원, 강희일, 경가람, 경북노회, 경여울, 계승균, 고경석, 고경화, 고금주, 고길희, 고다솜, 고다희, 고대완, 고동록, 고동일, 고명숙, 고명한, 고민선, 고범진, 고범진&윤원주, 고상호, 고석균, 고석운, 고성호, 고송이, 고수진, 고수현, 고승필, 고영빈, 고영연, 고영일, 고원경, 고원복, 고유경, 고유지, 고은, 고은비, 고은정, 고재균, 고재은, 고재춘, 고정욱, 고정진, 고정화, 고정환, 고정희, 고주영, 고준영, 고지수, 고지현, 고지훈, 고진만, 고창덕, 고천숙, 고태희, 고필권, 고학범, 고현경, 고희경, 공민석, 공민호, 공병조, 공수경, 공준성, 공헌구, 공희정, 곽기민, 곽명미, 곽민정, 곽병두, 곽상미, 곽상영, 곽성준, 곽수진, 곽승연, 곽연희, 곽영훈, 곽은진, 곽재복, 곽진숙, 곽춘희, 곽태균, 곽태선, 곽희필, 구기만, 구둘래, 구명숙, 구미영, 구병모, 구병윤, 구보경, 구본권, 구본주, 구본쾌, 구봉진, 구선회, 구성준, 구소연, 구소연, 구수정, 구수진, 구숙희, 구순이, 구영순, 구영호, 구자관, 구재왕, 구재희, 구현진, 구형규, 구희나, 국중영, 국현진, 권가희, 권계성, 권금화, 권기수, 권기주, 권나형, 권대길, 권덕순, 권미현, 권미혜, 권민조, 권민희, 권민희, 권범석, 권병렬, 권병채, 권성철, 권성하, 권소연, 권수경, 권순기, 권순목, 권순아, 권순형, 권승실, 권아연, 권애경, 권애영, 권영숙, 권영우, 권영진, 권영훈, 권영희, 권오신, 권은경, 권은영, 권은자, 권인경, 권종탁, 권중열, 권지미, 권지수, 권지은, 권처달, 권철, 권택명, 권혁조, 권혁진, 권현목, 권현미, 권현정, 권현정, 권형주, 권혜민, 권혜자, 권혜진, 권희연, 권희주, 금신자, 금창성, 기봉규, 기부자김소용, 기상연, 기영남, 기종림, 기창명, 기태우, 길남예, 길두근, 길우경, 김가람, 김가영, 김가영, 김가인, 김감남, 김갑봉, 김갑수, 김강민, 김강수, 김강수, 김건아, 김건우, 김건우, 김경남, 김경령, 김경리, 김경만,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민, 김경민, 김경배, 김경석, 김경선, 김경선,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심, 김경애, 김경연, 김경연, 김경원, 김경은, 김경한, 김경호, 김경희, 김경희, 김계산, 김계환, 김고은, 김공필, 김광덕, 김광섭, 김광수, 김광식, 김광옥, 김광옥, 김광옥, 김광익, 김광중, 김광호, 김국, 김국정, 김국정, 김권수, 김귀은, 김규호, 김균진, 김근우, 김금남, 김금옥, 김금자, 김기복, 김기선, 김기선, 김기선, 김기성, 김기영, 김기용, 김기은, 김기주, 김기태, 김기현, 김기현, 김기훈, 김길수, 김나경, 김나경, 김나경, 김나리, 김나연, 김나영, 김나윤, 김나진, 김나혜, 김남경, 김남선, 김남선, 김남우, 김남의, 김남이, 김남주, 김남희, 김노식, 김다미, 김다빈, 김다소미, 김다슬, 김다예, 김다윤, 김다임, 김다혜, 김단비, 김대근, 김대기, 김대영, 김대운, 김대익, 김대중, 김대진, 김대진, 김대환, 김대희, 김덕술, 김덕현, 김도영, 김도영, 김도영, 김도영, 김도유, 김도윤, 김도현, 김도현, 김돈겸, 김동규, 김동민, 김동석, 김동수, 김동신, 김동연, 김동욱, 김동운, 김동웅, 김동원, 김동윤, 김동은, 김동이, 김동익, 김동준, 김동준, 김동진, 김동진, 김동하, 김동하, 김동혁, 김동형, 김동희, 김동희, 김두영, 김두현, 김두현, 김란아, 김래석, 김명기, 김명렬, 김명수, 김명식, 김명연, 김명임, 김명자, 김명진, 김명진, 김명치, 김명환, 김목양, 김문규, 김문규, 김문철, 김문철, 김문희, 김미,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

나, 김미나, 김미남, 김미라, 김미라, 김미미, 김미사,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아, 김미애, 김미연, 김미연, 김미이, 김미자, 김미자,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진, 김미진, 김미진,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관, 김민국, 김민기, 김민련,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석, 김민석, 김민선,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식,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우, 김민우, 김민율, 김민재,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채, 김민철, 김민철, 김민혁&김민서&김민혜, 김민혜, 김민희, 김바다, 김바램, 김방선, 김범수, 김범수, 김범준, 김별, 김병관, 김병국, 김병수, 김병숙, 김병완, 김병용, 김병일, 김병준, 김병철, 김병하, 김병호, 김보경, 김보경, 김보근, 김보라, 김보라미, 김보람, 김보람, 김보람, 김보리, 김보린, 김보미, 김보성, 김보연, 김보영, 김보영, 김보영, 김보위, 김보은, 김보희, 김복순, 김복주, 김봉관, 김봉련, 김봉준, 김봉준, 김봉진, 김봉철, 김분이, 김분현, 김분희, 김삼정, 김상규, 김상균, 김상기, 김상문, 김상미, 김상범, 김상수, 김상수, 김상아, 김상옥, 김상우, 김상윤, 김상윤, 김상일, 김상진, 김상철, 김상철, 김상현, 김상훈, 김샘터, 김서라, 김서영, 김서영, 김서원, 김서윤, 김서율, 김서은, 김서이, 김석규, 김석균, 김석봉, 김석수, 김석영, 김석진, 김선경, 김선경, 김선규, 김선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용, 김선자, 김선정, 김선중, 김선호,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구, 김성구, 김성국, 김성규, 김성근, 김성기, 김성배, 김성보, 김성봉, 김성수, 김성숙, 김성식, 김성신, 김성아, 김성열, 김성열, 김성옥, 김성우, 김성은, 김성은, 김성은, 김성찬, 김성태, 김성태(잔피엘&엘파마 안양점), 김성택, 김성하, 김세곤, 김세권, 김세미, 김세영, 김세영, 김세영, 김세옥, 김세은, 김세인, 김세일, 김세정, 김세진, 김세진, 김세창, 김소라, 김소망,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오선화, 김소영주아경, 김소영주아정, 김소영주아현, 김소용, 김소윤, 김소은, 김소저, 김소정, 김소정, 김소현, 김소희, 김소희, 김송희, 김수건, 김수경, 김수남, 김수린, 김수미, 김수범, 김수병,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영, 김수완,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형, 김숙경, 김숙경, 김숙연, 김숙영, 김숙영, 김숙좌, 김순복, 김순영, 김순자, 김순주, 김순철, 김순환, 김순희, 김스란, 김슬기, 김슬기, 김슬기, 김슬기, 김승금, 김승민, 김승원, 김승주, 김승중, 김승중, 김승현, 김승환, 김승훈, 김승희, 김시영, 김시우, 김시윤, 김시윤, 김시형, 김시환, 김신, 김신겸, 김신아, 김신진, 김신휘, 김아연, 김아영, 김아영, 김아윤, 김애리, 김애실, 김애영, 김양수, 김양수, 김여환, 김연경, 김연석, 김연실, 김연지, 김연홍,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영, 김영기, 김영남, 김영란, 김영명, 김영빈, 김영삼, 김영상, 김영성,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욱, 김영웅, 김영은, 김영자, 김영자, 김영재, 김영재, 김영조, 김영주,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철, 김영태, 김영택, 김영한, 김영현, 김영현, 김영희, 김예리, 김예린, 김예순, 김예슬, 김예주, 김예준, 김예진, 김예진, 김옥경, 김옥경, 김옥광, 김옥미, 김옥순, 김옥채, 김옥희, 김요섭, 김요한, 김용, 김용, 김용경, 김용길, 김용대, 김용대, 김용복, 김용선, 김용철, 김용해, 김용호, 김용화, 김용환, 김용희, 김우경, 김우석, 김운영, 김원경, 김원경, 김원규, 김원욱, 김원일, 김원한, 김유경, 김유나, 김유라, 김유란, 김유리, 김유리, 김유민, 김유선, 김유성, 김유정,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희, 김윤경, 김윤경, 김윤석, 김윤성, 김윤성, 김윤숙, 김윤양, 김윤이, 김윤정, 김윤진, 김윤철, 김윤철, 김윤하, 김윤호, 김윤화,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은선, 김은선, 김은성, 김은수,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김민주&김주영, 김은유, 김은전,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우병현, 김은지, 김은지, 김은태,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응권, 김의래, 김의숙, 김의식, 김의열, 김의율, 김의진, 김의철, 김의현, 김이란, 김이선, 김이주, 김인경, 김인관, 김인교,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순, 김인아, 김인아, 김인영, 김인옥, 김인옥, 김인진, 김인혁, 김인혜, 김인혜, 김인환, 김인환, 김일석, 김일용, 김일호, 김자경, 김자영, 김자영, 김자혜, 김자혜, 김장규, 김장희, 김재경, 김재균, 김재덕, 김재성, 김재순, 김재식, 김재용, 김재욱, 김재원, 김재은, 김재주, 김재혁, 김재혁, 김재현, 김재형, 김재호&이정원&김윤이&김서이, 김재홍, 김재희, 김재희, 김점례, 김정근, 김정란, 김정미, 김정민, 김정민, 김정민, 김정백,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아, 김정연, 김정연, 김정연, 김정옥, 김정우, 김정욱, 김정윤&이태광,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의, 김정인, 김정일, 김정임, 김정진, 김정진, 김정하, 김정한, 김정한, 김정향, 김정헌,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화, 김정환, 김정환, 김정훈,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제수, 김존, 김종규, 김종근, 김종길, 김종대, 김종래, 김종만, 김종명, 김종문, 김종빈, 김종석, 김종섭, 김종식, 김종연, 김종우, 김종운, 김종일, 김종철, 김종헌, 김종혁, 김종현, 김종호, 김종훈, 김종훈, 김주기, 김주명, 김주석, 김주영, 김주오, 김주찬, 김주한, 김주현, 김주현, 김주형, 김주희, 김주희, 김준곤, 김준구, 김준규, 김준기, 김준식, 김준형, 김준형, 김준형, 김준환, 김준환, 김지나, 김지덕, 김지민, 김지민, 김지민, 김지선, 김지선, 김지수, 김지안, 김지언,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우, 김지우, 김지웅,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인, 김지혁,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희, 김진균, 김진모, 김진선, 김진섭, 김진솔, 김진수, 김진숙, 김진승, 김진아, 김진아, 김진아, 김진연, 김진영, 김진영, 김진영, 김진오, 김진우, 김진우, 김진웅, 김진원, 김진태, 김진현, 김진형, 김진호, 김진홍,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차섭, 김찬배, 김찬우, 김찬일, 김찬호, 김창국, 김창복, 김창성, 김창운, 김창원, 김창호, 김채은, 김천인, 김천환, 김철, 김철, 김철기, 김철민, 김철승, 김철웅, 김철홍, 김철훈, 김청숙, 김초은, 김초희, 김충부&최숙자, 김충열, 김탁현, 김태순, 김태순, 김태신,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오, 김태원, 김태윤, 김태정, 김태준, 김태진, 김태진, 김태형, 김태호, 김태호, 김태호, 김태호, 김태환, 김태환, 김태훈, 김태희, 김태희, 김필원, 김하늘, 김하린, 김하영, 김하영, 김하준, 김학균, 김학근, 김학래, 김학수, 김학윤, 김한겸, 김한길, 김한나, 김한나, 김한석, 김한성, 김한수, 김해규, 김해림, 김해미, 김해선, 김해숙, 김해정, 김해주, 김해진, 김행덕, 김현경, 김현경, 김현기, 김현대, 김현석, 김현선, 김현성, 김현수,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오, 김현우, 김현웅,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중,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현철, 김현희, 김형권, 김형대, 김형덕, 김형두, 김형숙, 김형식, 김형우, 김형은, 김형주, 김형진, 김형진, 김형찬, 김혜경, 김혜경, 김혜란, 김혜란, 김혜선,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정, 김혜정, 김혜준, 김혜진, 김홍성, 김홍운, 김홍주, 김홍중, 김화숙, 김화영, 김화진, 김환, 김환섭, 김환수, 김환옥, 김황, 김회중, 김회진, 김효남, 김효상, 김효순, 김효원, 김효은, 김효은, 김효은,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훈석, 김훈탁, 김휘은, 김휘주, 김흥진, 김희경, 김희관, 김희락, 김희선, 김희성, 김희수, 김희엽, 김희영, 김희영, 김희영, 김희원, 김희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김희진, 김희진, 김희창, 김희태, 김희현, 꿈꾸는아이들, 나경필, 나눔의기적, 나미애, 나상운, 나선미, 나선미, 나선영, 나성범, 나세학, 나승주, 나영경, 나예서, 나우관계사, 나윤경, 나윤경, 나윤주, 나은정, 나카시로히데오&이상희, 나태웅, 나현미, 나혜경, 날개없는천사, 남경석, 남구, 남궁보금, 남궁철, 남기열, 남기정, 남명숙(복음교회), 남명우, 남문선, 남미숙, 남민지, 남성복, 남수경, 남승우, 남승호, 남원진, 남정우, 남지연, 남지은, 남지현, 남채은&남효은, 남태령, 남효인, 노규식, 노동욱, 노무라&요리코부부, 노미리, 노민철, 노성단, 노성철, 노성희, 노순석, 노에스더, 노예슬, 노예준, 노완상, 노인철, 노정아, 노준명, 노지민, 노지현, 노채록, 노춘호, 노하정, 노한나, 노홍찬, 노효선, 노효성, 다경이선미, 대구대현이동춘, 도광주, 도다운, 도미숙, 도상록, 도싸철인, 도은경, 도현아, 도현철, 도호석, 도화은, 도효정, 동감, 동훈&진이, 두정희, 두진경, 라선미, 라이문드로이어, 루시아회, 류건, 류경화, 류기석, 류도균, 류동걸, 류동하, 류동헌, 류민, 류승호, 류영석, 류용도, 류은정, 류은주, 류인범, 류재민, 류재희, 류종걸, 류지나, 류지양, 류지은, 류지현, 류진아, 류진하, 류창남, 류창수, 류창완, 류태임, 리금란, 리정영, 마솔, 맹찬형, 맹하은, 멜리, 명다혜, 명세훈, 명지용, 명지은, 모규환, 모민경, 모지선, 목계선, 목현주, 문근수, 문기훈, 문다영, 문동섭, 문별, 문병모, 문병일, 문상중, 문새벽, 문석민, 문석희, 문선경, 문선희, 문성빈, 문성호, 문세리, 문소영, 문수아, 문승규, 문영기, 문영란, 문영숙, 문영재, 문예식, 문유진, 문은경, 문은진, 문인진, 문정례, 문정애, 문정현, 문중현, 문지혜, 문찬영, 문하은, 문한빛, 문형남, 문혜실, 문홍성, 민경미, 민경운, 민경원, 민경윤, 민근.가연, 민길정, 민병룡, 민병일, 민성진, 민소현, 민수기, 민순기, 민영인, 민용태, 민재기, 민재희, 민주환, 민지영, 민지영, 민지혜, 민하영, 민한음, 민현기, 민형진, 민혜경, 민혜재, 박경균, 박경미, 박경석, 박경주, 박경준, 박경표, 박경필, 박경해, 박경희, 박고은, 박광애, 박광익, 박균배, 박근숙, 박근영, 박근하, 박근환, 박금숙, 박기석, 박기선, 박기송, 박기용, 박기태, 박기하, 박기홍, 박길분, 박나예, 박난희, 박남식, 박다솜, 박단비, 박대석, 박대형, 박덕순, 박동로, 박동열, 박동현, 박동호, 박동훈, 박동훈, 박두억, 박만재, 박명숙, 박명옥, 박명하, 박명희, 박묘선, 박미경,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리, 박미숙, 박미숙, 박미숙, 박미아, 박미애, 박미연, 박미정, 박민경, 박민선, 박민재, 박민정, 박민정, 박민주, 박병구, 박병규, 박병수, 박병식, 박병진, 박병호, 박병훈, 박보경, 박보라, 박보영, 박봉희, 박비호, 박사희, 박상규, 박상규, 박상미, 박상원, 박상윤, 박상현, 박새롬, 박샘이나, 박서원, 박서정, 박서정, 박석근, 박선경, 박선미,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유, 박선정, 박선호, 박선희, 박성균, 박성래, 박성만, 박성미, 박성순, 박성용, 박성일, 박성진, 박성현, 박성혜, 박성환, 박성훈, 박성희, 박세진, 박세택, 박세훈, 박소량, 박소언, 박소연, 박소연, 박소연,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소영, 박소정,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수범, 박수빈, 박수용,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수희, 박순덕, 박순애, 박순연, 박순진, 박슬기, 박슬우, 박승룡, 박승보, 박승천, 박승하, 박승호, 박시은, 박시현, 박시현, 박신영, 박신영, 박아람, 박아름, 박아영, 박애리, 박연경, 박연복, 박연봉, 박연선, 박영남, 박영만, 박영묵, 박영선, 박영선, 박영숙, 박영숙, 박영신, 박영애, 박영주, 박영철, 박영학, 박영희, 박영희, 박오선, 박옥난, 박옥순, 박옥화, 박옥희, 박요섭, 박용배, 박용성, 박용수, 박용희, 박운희, 박웅, 박원춘, 박유진, 박유진, 박윤, 박윤미, 박윤선, 박윤수, 박윤정, 박윤정, 박윤지,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미, 박은선, 박은수, 박은숙, 박은숙, 박은주, 박은주, 박은희, 박은희, 박은희, 박의숙, 박이선, 박인숙, 박인실, 박인애, 박인철, 박인호, 박일진, 박재경, 박재남, 박재동, 박재민, 박재민, 박재서, 박재석, 박재영, 박재완, 박재은, 박재철, 박재홍, 박재희, 박점미, 박점식, 박정관, 박정덕, 박정미, 박정민, 박정민, 박정숙, 박정숙, 박정숙, 박정아, 박정애, 박정연, 박정욱, 박정은, 박정임, 박정호, 박정희, 박제언, 박제용, 박제인, 박제준, 박종관, 박종균, 박종덕, 박종서, 박종석, 박종석, 박종수, 박종순, 박종옥, 박종은, 박종일, 박종채, 박종필, 박종혁, 박종현, 박종호, 박종호, 박종환, 박주문, 박주성, 박주연, 박주영, 박주원, 박주은, 박주하, 박주현, 박주현, 박주현, 박주현, 박주형, 박주희, 박주희, 박준상, 박준열, 박준용, 박준용, 박준원, 박준호, 박준홍, 박준희, 박지선,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우,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윤, 박지은, 박지은, 박지인, 박지현, 박지현, 박지혜, 박지호, 박지홍, 박지희, 박진만, 박진배, 박진빈, 박진섭, 박진성, 박진수, 박진숙, 박진애, 박진영, 박진영, 박진우, 박진형, 박진호, 박진희, 박찬이, 박창노, 박창배, 박창수, 박창신, 박창희, 박채련, 박천국, 박천효, 박철, 박철민, 박철우, 박철웅, 박철하, 박철현, 박초롱, 박충희, 박태균, 박태욱, 박태준, 박평범, 박하나, 박하나, 박한나, 박한나, 박한상&박보인, 박해진, 박헌영, 박헌옥, 박헌자, 박헌황, 박현미, 박현성, 박현성, 박현숙, 박현아, 박현아, 박현우, 박현우, 박현제, 박현진, 박현표, 박현희, 박현희, 박형길, 박형서, 박형준, 박형진, 박형진, 박혜경, 박혜경, 박혜미, 박혜숙, 박혜숙, 박혜영, 박혜영, 박혜영, 박혜인, 박혜정, 박혜진, 박혜진, 박화용, 박효경, 박효범, 박효섭, 박효주, 박희경, 박희림, 박희정, 박희주, 밤부, 방경란, 방경민, 방기정, 방만기, 방무일, 방선하, 방송자, 방순금, 방의진, 방정화, 방태일, 방혜신, 방호권, 방효남, 배규리, 배금란, 배기완, 배나래, 배미경, 배미경, 배미정, 배미주, 배상유, 배선미, 배수지, 배숭수, 배애경, 배영빈, 배용일, 배욱형, 배유경, 배은진, 배재광, 배지

연, 배지은, 배하은, 배헌엽, 배혜진, 백경학, 백다은, 백동현, 백려정, 백미경, 백미숙, 백미영, 백민주, 백민지, 백봉국, 백선미, 백선영, 백선영, 백순엽, 백숭기, 백승미, 백승석, 백승현, 백승흠, 백연숙, 백영기, 백영림, 백우순, 백운학, 백원미, 백원석, 백원진, 백윤수, 백은숙, 백은옥, 백은주, 백인홍, 백정기, 백정현, 백종민, 백종업, 백주연, 백준혜, 백지숙, 백지윤, 백진규, 백진호, 백태현, 백하은, 백한승, 백해림, 백현진, 백형민, 베르체, 변경은, 변경희, 변미숙, 변미혜, 변민숙, 변상욱, 변성일, 변영미, 변영철, 변원수, 변정현, 변주항, 변지선, 변진성, 변하연, 변혜진, 복대니얼, 복문수&이은주, 봉원범, 비담, 빈충환, 빛이나, 삐약이, 사미선, 상인오, 서가은, 서강준, 서경, 서경교, 서경원, 서경주, 서경채, 서경화, 서관석, 서광휘, 서기문, 서대식, 서동락, 서동화, 서미령, 서미영&서민정, 서미희, 서민경, 서민정, 서민정, 서민해, 서민호, 서보람, 서봉종, 서상현, 서석균, 서석순, 서선영, 서성모, 서성태, 서세나, 서세하, 서숙, 서순희, 서숭비, 서승애, 서승옥, 서승옥, 서연희, 서영우, 서영자, 서오령, 서오영, 서용님, 서유경, 서유정, 서유정, 서윤아, 서인공주, 서인석, 서인숙, 서재균, 서재원, 서재학, 서점옥, 서정규, 서정님, 서정민, 서정순, 서정욱, 서정하, 서제민, 서종현, 서주영, 서지영, 서지원, 서지현, 서지호, 서지희, 서진공주, 서진아, 서진호, 서하이, 서한미, 서현아, 서현희, 서형근, 서형연, 서혜나, 서황원, 서효은, 서희정, 석기석, 선미라, 선민규, 선민규, 선민규, 선우윤, 선초이, 선현, 선현구, 설미영, 설순단, 설영희, 설재우, 설종수, 설혜신, 성계화, 성관모, 성기웅, 성기윤&김희찬, 성미은, 성민해, 성민희, 성상일, 성소연, 성애자, 성연우, 성용욱, 성은경, 성은아, 성준용, 성지혜, 성진호, 성태동, 성하야, 성혜경, 션, 소기호, 소나무, 소만억, 소병곤, 소수진, 소재성, 소재현, 소정민, 소정우, 소진영, 소하경, 소향화, 소현석, 손경숙, 손경자, 손광준, 손교욱, 손규인, 손근필, 손기철, 손동길, 손명혜&김용헌, 손미희, 손민웅, 손범규, 손부현, 손상진, 손상철, 손성미, 손수현, 손연지, 손영철, 손영휘, 손요셉, 손유석, 손윤석, 손은경, 손은주, 손일나, 손재철, 손정현, 손주현, 손주현, 손주희, 손지연, 손지은, 손지현, 손찬미, 손찬익, 손태혁, 손현숙, 손혜경, 손혜성, 손혜연, 손호석, 손희숙, 송경숙, 송경아, 송계원, 송고운, 송광현, 송기수, 송나은, 송대식, 송대운, 송명준, 송명희, 송미경, 송민선, 송보경, 송상원, 송서영, 송서영, 송서현, 송선미, 송선희, 송성호, 송세원, 송송이, 송수연, 송수현, 송숙영, 송승준, 송아영, 송아현, 송영근, 송영진, 송옥례, 송용권, 송용기, 송용재, 송우진, 송우현, 송원의, 송유경, 송유림, 송유수, 송유정, 송윤영, 송은림, 송은순, 송은주, 송은혜&안계석&안하나&안사무엘, 송의진, 송인경, 송일국&대한&민국&만세, 송재용, 송재용, 송재이, 송정미, 송주아, 송주연, 송준근, 송준호, 송지현, 송지현, 송지호, 송진영, 송철민, 송현경, 송현진, 송혜경, 송혜민, 송혜연, 송희경, 승주현, 시지훈, 신결, 신경옥, 신경은, 신계륜, 신관식, 신광영, 신광호, 신기리, 신기원, 신기현, 신다혜, 신단비, 신덕희, 신도현, 신동균, 신동민, 신동우, 신동욱, 신동주, 신동지, 신동호, 신명은, 신문선, 신민섭, 신민희, 신복자, 신복희, 신상규, 신상길, 신상돈, 신상철, 신선련, 신선아, 신성대, 신성민, 신숙경, 신순자, 신슬기, 신승오, 신승태, 신승택, 신승호, 신아영, 신양수, 신영각, 신영록, 신영미, 신영수, 신영인, 신영주, 신영진, 신용범, 신용순, 신우종, 신유민, 신윤영, 신윤자, 신율아, 신은경, 신은정, 신은지, 신의영, 신이호, 신인경, 신인혜, 신임호, 신장섭, 신재은, 신정, 신정기, 신정민, 신정숙, 신정우, 신정원, 신정은, 신정이, 신정환, 신정훈, 신정훈, 신정희, 신종숙, 신지원, 신지혜, 신지휼, 신지희, 신지희, 신진섭, 신찬우, 신창재, 신채용, 신천순, 신현근, 신현석, 신현옥, 신현우, 신혜경, 신혜영, 신혜윤, 신혜정, 신혜진, 심동석, 심명희, 심문영, 심미란, 심보라, 심상휘, 심서현, 심선미, 심선섭, 심선아, 심성보, 심수현, 심순옥, 심승선, 심아진, 심영규, 심예희, 심우용, 심우탁, 심은자, 심은지, 심재웅, 심재철, 심진숙, 심철희, 심현자, 심환희, 아침을여는천사, 안경화, 안대섭, 안덕자, 안도형, 안두호, 안미선, 안민주, 안범수, 안병수, 안병조, 안보현, 안새롬, 안서연, 안석근, 안석훈, 안선영, 안성대, 안성일, 안소연, 안수민, 안수현, 안승욱, 안승현, 안아름, 안영미, 안영선, 안영수, 안우선, 안유배, 안유선, 안윤희, 안용, 안은석, 안은주, 안이주, 안재빈, 안재연, 안재용, 안재윤, 안정숙, 안정윤, 안정현, 안정현, 안주연, 안준상, 안준철, 안지연, 안지연, 안지영, 안지영, 안지원, 안지은, 안지환, 안지훈, 안진웅, 안찬식, 안창숙, 안철남, 안철희, 안치권, 안치근, 안태장, 안태정, 안현정, 안혜숙, 안혜숙, 안혜원, 안혜정, 안환희, 안효준, 안희정, 안희준, 안희철, 압구정교회&고규태&조형란&고소미&고평진&고나영, 애프터스쿨 레이나, 양갑종, 양경아, 양경화, 양경희, 양금신, 양대영, 양동표, 양문영, 양미례, 양미숙, 양미정, 양민주, 양병욱, 양봉웅, 양새봄, 양서윤, 양석표, 양석헌, 양성목, 양성민, 양성용, 양성한, 양승미, 양승수, 양승원, 양심미, 양심순, 양영순, 양영은, 양영진, 양윤희, 양은주, 양은지, 양은화, 양정선, 양정인, 양정인, 양종구, 양주성, 양지영, 양지영, 양지혜, 양진모, 양진용, 양진혁, 양찬숙, 양하준, 양해란, 양해리, 양혁진, 양현우, 양혜령, 양혜영, 양혜원, 양효진, 양희경, 양희철, 어수용, 어윤서, 엄경자, 엄기화, 엄민숙, 엄민주, 엄선, 엄신정, 엄예솔, 엄우삼, 엄익태, 엄인성, 엄정헌, 엄정화, 엄주익, 엄지원, 엄지현, 엄지혜, 엄철민, 엄태신, 엄홍길, 여규병, 여동근, 여동현, 여민경, 여은진, 연기백, 연동한, 연보라, 연수빈, 연준혁, 연지영, 염자은, 염주옥, 염준용, 염지영, 염혜선, 예수진, 오가영, 오감석, 오건우, 오경복, 오경순, 오경율, 오경은, 오경준, 오권수, 오기원, 오도영, 오동희, 오명석, 오미경, 오미정, 오미정, 오병관, 오병석, 오병원, 오보현, 오복현, 오산택, 오상진, 오상훈, 오세라, 오소영, 오수현, 오숙영, 오승전, 오승현, 오승호, 오시내, 오연성, 오영환, 오왕근, 오우주, 오윤정, 오윤호, 오윤희, 오은주, 오은화, 오일환, 오자영, 오재원, 오재정, 오재향, 오재호, 오정민, 오정민, 오정석, 오정선, 오정임, 오정혜, 오지은, 오지은, 오지은, 오지은, 오지홍, 오진아, 오찬석, 오참, 오창현, 오채이, 오태균, 오해룡, 오해성, 오해준, 오현숙, 오현숙, 오혜순, 오혜원, 오화자, 오효정, 오효진, 오희숙, 옥서영, 옥석재, 옥은진, 온가영, 왕기덕, 왕선숙, 왕선영, 왕수정, 왕유진, 왕지애, 용수빈, 용희진, 우광임, 우기철, 우남주, 우단희, 우동백, 우민영, 우민혁, 우상곤, 우상임, 우안숙, 우영순, 우영애, 우정우, 우정환, 우종철, 우지민, 우희옥, 욱이옥이, 원경희, 원광현, 원상연, 원상호, 원애영, 원용선, 원용선, 원용철, 원유정, 원유형, 원장연, 원재&연재, 원주순, 원준경, 원지희, 원진하, 원찬영&김태균, 원택스님, 원현숙, 원혜영, 위점숙, 위지오, 위하늘, 위하은, 유경순, 유경희, 유광미, 유광순, 유근석, 유금순, 유남재, 유다연, 유대규, 유덕순, 유미진, 유미현, 유민경, 유민주, 유상원, 유선숙, 유선아, 유소종, 유송자, 유수민, 유수진, 유승기, 유승엽, 유승현, 유승훈, 유시용, 유연호, 유영덕, 유영숙, 유영신, 유영인, 유영희, 유예지, 유외행, 유은미, 유은미, 유은찬, 유자영, 유재남, 유재남, 유재숙, 유재은, 유재현, 유정현, 유제민, 유제욱, 유종우, 유주심, 유준상, 유지연, 유지은, 유지은, 유지훈, 유진건, 유진명, 유진숙, 유진아, 유창민, 유창수, 유하은, 유현미, 유현아, 유현우, 유현정, 유현주, 유현준, 유혜련, 유혜숙, 유혜전, 유호상, 유화영, 유효정, 육경희, 육병균, 육세정, 육지애, 육지영, 윤경수, 윤경호, 윤고은, 윤광배, 윤기준, 윤기현, 윤길선, 윤나경, 윤나은, 윤내리, 윤다혜, 윤대근, 윤덕수, 윤두선, 윤미경, 윤미은, 윤민수, 윤민옥, 윤병규, 윤병선, 윤삼현, 윤상민, 윤석민, 윤선미, 윤선혜, 윤성우, 윤성필, 윤성필, 윤성혜, 윤소미, 윤소영, 윤송아, 윤수영, 윤순옥, 윤순주, 윤순현, 윤슬전기, 윤승희, 윤애란, 윤애숙, 윤에스더, 윤여경, 윤연화, 윤영진, 윤예송, 윤예진, 윤옥이, 윤왕현, 윤원주, 윤은선, 윤은성, 윤재돈, 윤재순, 윤재연, 윤재영, 윤재원, 윤재훈, 윤정미, 윤정민, 윤정석, 윤정원, 윤정은, 윤정은, 윤정화, 윤정화, 윤주영, 윤주영, 윤주용, 윤지나, 윤지서, 윤지연, 윤지영, 윤지원, 윤진, 윤진성, 윤진우, 윤창환, 윤태상, 윤태열, 윤필선, 윤하진, 윤해욱, 윤현숙, 윤혜신, 윤호규, 윤호식, 윤호전, 윤호진, 윤희자, 윤희진, 은재원, 이가람, 이가영, 이가은, 이가현, 이강렬, 이강명, 이강섭, 이강재, 이강준, 이강춘, 이강현, 이강호, 이건명닷컴, 이건욱, 이건주, 이경, 이경구, 이경근, 이경녕, 이경란, 이경란, 이경미, 이경민, 이경범, 이경복, 이경선, 이경선, 이경숙, 이경아, 이경아, 이경연, 이경우, 이경은, 이경은, 이경진, 이경진, 이경하, 이경환, 이경환,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계원, 이계주, 이관한, 이관희&이상용, 이광윤, 이광표, 이광호, 이권호, 이귀옥, 이규선, 이규성, 이규영, 이규일, 이규형, 이근실, 이근화, 이금임, 이기승&임성숙, 이기완, 이기운, 이기웅, 이기원, 이기준, 이기호, 이기화, 이기훈, 이길재, 이길주, 이길형, 이길호, 이나경, 이나영, 이남숙, 이내리, 이다빈, 이다솜, 이다은, 이다은, 이다진, 이다현, 이다형, 이대섭, 이덕규, 이덕재, 이도령, 이도병, 이동곤, 이동규, 이동미, 이동선, 이동수, 이동수, 이동순, 이동용, 이동욱, 이동주, 이동준, 이동헌, 이동훈, 이동훈, 이동희, 이두선, 이라헬, 이래현, 이루비, 이루진, 이만재, 이명규, 이명숙, 이명우, 이명자, 이명재,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모경, 이문숙&서명찬, 이문영, 이문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라, 이미란, 이미미, 이미선, 이미선, 이미선, 이미선, 이미아,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희, 이민경, 이민석, 이민아, 이민우, 이민은, 이민재, 이민재, 이민정, 이민정, 이민주, 이민지, 이민희, 이방훈, 이병규, 이병남, 이병무, 이병수, 이병준, 이병천, 이병춘, 이병희, 이보균, 이보람, 이보람, 이보연, 이보윤, 이보인, 이복미, 이봉구, 이봉현, 이산하, 이산희, 이삼영, 이상광, 이상교, 이상국, 이상민, 이상봉, 이상영, 이상우, 이상우, 이상윤, 이상은, 이상임, 이상진, 이상천, 이상하, 이상헌, 이상훈, 이상훈, 이상흠, 이상희, 이상희, 이새꿈, 이서경, 이서린, 이서운, 이서윤, 이서율, 이서현, 이석우, 이석은, 이석재, 이석화, 이선교, 이선근, 이선덕, 이선미, 이선숙, 이선영, 이선영, 이선영, 이선영, 이선옥, 이선주, 이선진, 이선하, 이선화,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설희, 이성렬, 이성룡, 이성수, 이성우, 이성음, 이성일, 이성재, 이성조, 이성호, 이성호, 이성호, 이성호, 이성훈, 이성훈, 이성희, 이성희, 이세균, 이세현, 이소연, 이소연, 이소영, 이소영, 이소영, 이소영, 이소윤, 이소을, 이솔미, 이송우, 이수광, 이수린, 이수민, 이수영, 이수옥, 이수잔,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숙, 이숙자, 이숙희, 이순애, 이순영, 이순우, 이순자, 이순희, 이순희, 이스데반, 이슬기, 이슬이, 이승건, 이승균, 이승만, 이승민, 이승연, 이승연, 이승원, 이승이, 이승재, 이승택, 이승하, 이승한,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승희, 이승희, 이승희, 이승희, 이시온, 이시형, 이신복, 이신숙, 이아영, 이아현, 이안철, 이애경, 이애리, 이애진, 이언식, 이연정, 이연조, 이연주, 이연화, 이영광,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석, 이영선, 이영선, 이영선, 이영섭,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신, 이영실, 이영옥, 이영욱, 이영원, 이영인, 이영일, 이영재, 이영재, 이영주, 이영진, 이영진, 이영태, 이영희, 이예경, 이예다, 이예담, 이예리나, 이예빈, 이예빛, 이예선, 이예연, 이예은, 이오식, 이옥란, 이옥순, 이옥자, 이옥화, 이옥희, 이용, 이용곤, 이용구, 이용숙, 이용중, 이용진, 이용진, 이용현, 이용환, 이용환, 이우석, 이우용, 이원광, 이원식, 이원이, 이원재, 이원종, 이원철, 이원희, 이원희, 이유경, 이유림, 이유미, 이유재, 이유정,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미, 이윤미, 이윤복, 이윤석, 이윤선, 이윤재,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윤형, 이윤화, 이율,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김민준, 이은덕, 이은미, 이은비, 이은선, 이은성,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완, 이은우, 이은임,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제,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현, 이은혜, 이은호, 이은희, 이은희, 이을호, 이의연, 이의정, 이의희, 이인걸, 이인규, 이인묵, 이인선, 이인순, 이인재, 이인철, 이인혜, 이일영, 이일우, 이일환, 이임수, 이자옥, 이장수, 이재국, 이재기, 이재덕, 이재두, 이재란, 이재선, 이재성, 이재식&양남수, 이재연, 이재영, 이재용, 이재원, 이재윤, 이재은, 이재준, 이재준, 이재현, 이재호, 이재훈, 이재훈, 이정근, 이정란, 이정모, 이정미, 이정민, 이정선, 이정선, 이정선, 이정순, 이정식, 이정안, 이정애, 이정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인, 이정진, 이정하, 이정현, 이정혜,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제일, 이제현, 이제희, 이존성, 이종갑, 이종교, 이종덕, 이종민, 이종복, 이종섭, 이종수, 이종순, 이종심, 이종안, 이종안, 이종언, 이종원, 이종인, 이종택, 이종혁, 이종호, 이종훈, 이종훈, 이주경, 이주연, 이주연, 이주영, 이주용, 이주용, 이주원, 이주원, 이주원, 이주은, 이주은, 이주항, 이주현, 이주훈, 이주희, 이준복, 이준성, 이준영, 이준용, 이준호, 이지민, 이지민고범진, 이지선, 이지선, 이지수, 이지양,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원, 이지원, 이지원, 이지유, 이지윤, 이지은, 이지창, 이지향, 이지현, 이지형, 이지혜, 이지혜, 이지혜, 이지혜, 이지호, 이지희, 이진, 이진, 이진석, 이진선, 이진성, 이진성, 이진숙, 이진영, 이진영, 이진영, 이진우, 이진주, 이진주, 이진철, 이진호, 이진희, 이차혜, 이찬영, 이찬우, 이찬호, 이창곤, 이창미, 이창민, 이창민, 이창수, 이창엽, 이창원, 이창진, 이창홍, 이창훈, 이창훈, 이창휘, 이창희, 이채민,

이채민, 이채윤, 이채현, 이천, 이철수, 이철재, 이철희, 이청아, 이청해, 이초롱, 이추경, 이춘발, 이춘엽, 이춘원, 이춘희, 이충만, 이충오, 이치화, 이치훈, 이태건, 이태경, 이태경, 이태석, 이태신, 이태영, 이태윤, 이택경, 이평희&박소연, 이풀잎, 이필순, 이필우, 이하나, 이하나, 이하늘, 이하선, 이하선, 이하연, 이한, 이한구, 이한나, 이한영, 이한희, 이해리, 이해숙, 이해정, 이행원, 이향환, 이헌석, 이헌주, 이혁, 이혁수, 이현경, 이현구, 이현구, 이현두, 이현빈, 이현선,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실, 이현영, 이현재,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종,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준, 이현진, 이형구, 이형열, 이형원, 이형인, 이형일, 이형재, 이형진, 이혜경, 이혜경, 이혜경, 이혜민, 이혜선, 이혜선, 이혜숙, 이혜숙, 이혜연, 이혜자, 이혜정, 이혜정, 이혜진, 이혜진, 이호, 이호분, 이호상, 이호선, 이호용, 이호정, 이홍우, 이홍자, 이홍주, 이홍춘, 이화숙, 이화평, 이환희, 이효민, 이효빈, 이효석, 이효순, 이효재, 이효정, 이효정, 이효정, 이효주, 이효진, 이효진, 이흥구, 이희나, 이희명, 이희상, 이희서, 이희석, 이희선, 이희선, 이희수, 이희숙, 이희승, 이희승, 이희승, 이희우, 이희원, 이희원, 이희정, 이희출, 인규성, 인성욱, 인정희, 인창옥, 임가람, 임건우, 임경미, 임경호, 임경환, 임광호, 임기쁨, 임도윤, 임동선, 임동욱, 임동혁, 임리경, 임명숙, 임명희, 임미란, 임미현, 임민제, 임병웅, 임병호, 임병훈, 임상준, 임서연, 임서영, 임서현, 임선옥, 임성모, 임성민, 임성수, 임성언, 임세진, 임소리, 임소연, 임송이, 임수경, 임수빈, 임수진, 임승관, 임아나, 임연욱, 임영기, 임영은, 임영하, 임영호, 임영호, 임예순, 임옥경, 임옥규, 임옥자, 임용선, 임우길, 임원주, 임유선, 임윤순, 임윤옥, 임윤주, 임은금, 임은수, 임은영, 임응수, 임재학, 임재현, 임재형, 임정모, 임정옥, 임정우, 임정진, 임정택, 임정희, 임종승, 임주애, 임주열, 임주영, 임주혜, 임주희, 임준영, 임지수, 임지애, 임지영, 임지우, 임지원, 임지현, 임지현, 임지현, 임지화, 임지환, 임진희, 임찬기, 임찬수, 임채춘, 임채현, 임철성, 임충혁, 임태호, 임현옥, 임현주, 임형균, 임형미, 임형석, 임형탁, 임혜원, 임혜진, 임홍진, 임홍태, 임활규, 임효묵, 장경란, 장경석, 장경연, 장경의, 장광섭, 장광필, 장규태, 장기덕, 장남윤, 장대현, 장덕기, 장동욱, 장동준, 장명경, 장명훈, 장문혁, 장미경, 장미진, 장미현, 장미희, 장민경, 장민솔, 장민옥, 장민정, 장방택, 장병국, 장병기, 장보경, 장보석, 장복규, 장복실, 장서연, 장석아, 장석천, 장석태, 장석현, 장선미, 장선영, 장선익, 장성우, 장성윤&임은정, 장세정, 장소영, 장소영, 장수현, 장승연, 장승원, 장아름, 장예형, 장옥화, 장옥희, 장용수, 장우영, 장원찬, 장은진, 장은혜, 장은혜, 장인서, 장인주, 장재균, 장재선, 장재혁, 장재호, 장재희독일, 장정현, 장정희, 장종수, 장종원, 장주란, 장준영, 장준익, 장준혁, 장지연, 장지우, 장지윤, 장지현, 장지훈, 장학기, 장학희, 장한빛, 장혁수, 장현경, 장현민, 장현숙, 장현식, 장현식, 장현아, 장혜인, 장효인, 장훈호, 장희정, 장희진, 전갑진, 전고은, 전관옥, 전기호, 전대수, 전도영, 전동건, 전동욱, 전명배, 전미경, 전미연, 전미영, 전미영, 전미영, 전미옥, 전미향, 전민영, 전민정, 전부순, 전상연, 전상준, 전서영, 전석영, 전선호, 전성구, 전성배, 전성윤, 전성주, 전세희, 전소연, 전수미, 전수진후원자, 전수현, 전순자, 전승, 전승배, 전승운, 전신규, 전아인, 전영규, 전영근, 전영미, 전영주, 전영준, 전영태, 전영환, 전예림, 전예희, 전용재, 전원배, 전유정, 전유향, 전유훈아이스버킷, 전은경, 전은경, 전은숙, 전은아, 전은영, 전익관, 전인숙, 전인표, 전일수, 전재향, 전정원, 전제민, 전주현, 전준영, 전지연, 전지혜, 전찬, 전태강, 전해원, 전형종, 전혜란, 전혜선, 전홍덕, 전홍미, 전홍육, 전홍철, 전환희, 전효민, 전휘진, 정경수, 정경하, 정광섭, 정광회, 정규채, 정근지, 정기수, 정기준, 정길주, 정나리, 정낙현, 정남호, 정다정, 정다정, 정다혜, 정담빈, 정덕형, 정도순, 정동민, 정동주, 정동희, 정락형, 정래종, 정말희, 정명숙, 정몽준, 정묘정란, 정문갑, 정문수, 정문자, 정미나, 정미란, 정미숙, 정미영, 정미원, 정민경, 정민정, 정박문, 정병도, 정부원, 정사랑, 정서린, 정서영, 정서윤, 정서윤, 정서일, 정서형, 정서희, 정석윤, 정석환, 정선영, 정선영, 정선옥, 정선웅, 정선희, 정선희, 정선희, 정성국, 정성헌, 정성훈, 정성희, 정세균, 정송이, 정수연, 정수정, 정수정, 정숙, 정숙자, 정숙희, 정순탁, 정순희, 정슬기, 정승아, 정승우, 정승혜, 정승호, 정승훈, 정아연, 정양주, 정여은, 정연석, 정연수, 정연홍, 정영림, 정영민, 정영선, 정영숙, 정영아, 정영욱, 정영운, 정영희, 정오승, 정완식, 정용서, 정용재, 정우엽, 정우진, 정우현, 정원식, 정원영, 정원정, 정유지, 정유진, 정유진, 정유진, 정유진, 정윤미, 정윤서, 정윤채&정재윤, 정은미, 정은선, 정은애, 정은영, 정은임, 정은주, 정은혜, 정은희, 정이안, 정인국, 정인선, 정인섭, 정인택, 정일수, 정일윤, 정재권, 정재근, 정재영, 정재학, 정재혁, 정재호, 정재환, 정재희, 정점옥, 정정숙, 정정주, 정정희, 정종한, 정종화, 정주숙, 정주연, 정주화, 정주희, 정지민&정지환, 정지섭, 정지숙, 정지영, 정지영, 정지운, 정지은, 정지은, 정지찬, 정지혜, 정지환, 정진수, 정진영, 정진욱, 정진주, 정진택, 정진형, 정진홍, 정차경, 정창균, 정태섭, 정태섭, 정태진, 정태형, 정필동, 정하나, 정한성, 정한영, 정한용, 정해민, 정해상, 정해수, 정헌선, 정현기, 정현석, 정현수, 정현숙, 정현아, 정현영, 정현자, 정현정, 정현종, 정현주, 정현주, 정현채, 정형웅, 정형철, 정형택, 정혜경, 정혜경, 정혜상, 정혜순, 정혜영, 정혜영, 정혜원, 정혜원, 정혜원, 정혜은, 정혜인, 정혜주, 정혜주, 정혜진, 정혜진, 정혜현, 정호승, 정호열, 정호영, 정홍렬, 정황희, 정회욱, 정효시, 정효진, 정흥채, 정희경, 정희경, 정희영, 정희욱, 정희원, 정희정, 조가은, 조가현, 조강현, 조건진, 조경란, 조경미, 조경식, 조경아, 조경애, 조경연, 조경장, 조경호, 조경훈, 조관희, 조국현, 조규찬, 조기용, 조기현, 조길호, 조나리, 조남균, 조남균, 조남임, 조대현, 조두연, 조라영, 조명주, 조명화, 조명희, 조무제, 조미애, 조미영, 조미영, 조미정, 조미향, 조미현, 조민석, 조민수, 조민영, 조민정, 조민진, 조범석, 조병규, 조병로, 조병무, 조병섭, 조병수, 조병연, 조보경, 조봉석, 조상도, 조서희, 조선희, 조선희, 조선희, 조성강, 조성란, 조성숙, 조성순, 조성자, 조성자, 조성주, 조세현, 조세훈, 조소영, 조수미, 조수빈, 조수아, 조수연, 조수연, 조수진, 조수현, 조숙경, 조승연, 조승호, 조승훈, 조아영, 조안나, 조안수, 조연서, 조연악, 조영남, 조영화, 조영훈, 조영훈, 조영희, 조예란, 조예진, 조옥희, 조용균, 조용민김민재, 조용준, 조운정, 조원호, 조유정, 조윤아, 조윤영, 조윤정, 조은경, 조은미, 조은미, 조은영, 조은우, 조은이, 조은준, 조은지, 조은희, 조익신, 조인성, 조일형, 조재민, 조재삼, 조재원, 조재현, 조정래, 조정연, 조정우, 조정은, 조정훈, 조정희, 조주희, 조준민, 조준상, 조지은, 조진만, 조찬연, 조찬욱, 조창미, 조창수, 조춘제, 조충현, 조충현, 조태운, 조태희, 조하민, 조하영, 조하은, 조한결, 조한구, 조한나, 조한필, 조한혁, 조해근, 조향연, 조현배, 조현성, 조현숙, 조현숙, 조현자, 조현조, 조현철, 조현철, 조형락, 조형성, 조형식, 조형제, 조혜경, 조혜영, 조혜원, 조혜진, 조혜진, 조화옥, 조훈, 조흥식, 조희숙, 좌윤정, 주대준, 주민정, 주민정, 주범, 주성경, 주성희, 주영훈, 주옥선, 주유빈, 주은경, 주은미, 주재석, 주종훈, 주지훈, 주진희, 주필홍, 주현영, 주현우, 주혜정, 주홍선, 주훈, 지강원, 지만영, 지명환, 지서인, 지승철, 지연숙, 지예름, 지용구, 지우영, 지웅, 지응구, 지정현, 지하나, 진길재, 진미경, 진민섭, 진성호, 진수정, 진승현, 진양선, 진연호, 진영경, 진영두, 진용우, 진용희, 진원미, 진원정, 진익승, 진재성, 진종선, 진주영, 진혜선, 차경선, 차경자, 차기철, 차동섭, 차명희, 차미연, 차미향, 차민혜, 차승규, 차승원, 차연화, 차우신, 차윤석, 차은서, 차재억, 차정도, 차정미, 차정민, 차주원, 차지명, 차지민&차수빈, 차지영, 차진연, 채민우, 채상유, 채수민, 채수민, 채시연, 채시우, 채윤희, 채은기, 채재인, 채춘호, 채하은, 채형원, 채혜원, 채홍근, 채희태, 천민혁, 천샘, 천세철, 천소영, 천송이, 천승민, 천아영, 천안펀댄스권혁준, 천영섭, 천용석, 천용의, 천윤슬, 천현정, 천효선, 최가연, 최가현, 최강은, 최건무, 최건우, 최경숙, 최광은, 최규복, 최규선, 최기남, 최기남, 최기웅, 최기원, 최기주, 최내영, 최단비, 최대락, 최대성, 최도용, 최도원, 최동규, 최동산, 최동영, 최동일, 최명식, 최명욱, 최명원, 최명원, 최명호, 최명희, 최문정, 최문정, 최문정, 최문정, 최미경, 최미리, 최미미, 최미선, 최미숙, 최미순, 최미애, 최미영, 최미옥, 최미자, 최미지, 최미형, 최민, 최민기, 최민성, 최밝음, 최범, 최병진, 최병천, 최병철, 최보경, 최보경, 최보선, 최보현, 최복희, 최상광, 최상규, 최상욱, 최상원, 최상현, 최상환, 최서연, 최서원&최민교, 최서윤, 최서이, 최석광, 최석만, 최석우, 최석호, 최선, 최선경, 최선규, 최선미, 최선영, 최선화, 최성규, 최성규, 최성옥, 최성일, 최성환, 최소연, 최수영, 최순선, 최순애, 최순옥, 최순철, 최슬기, 최승곤, 최승구, 최승국, 최승민, 최승애, 최시온, 최신영, 최아영, 최애경, 최양, 최양근, 최연경, 최영동, 최영범, 최영수, 최영은, 최영준, 최영훈, 최영희, 최영희, 최예나&최하영, 최예나&최하영, 최예선, 최예지, 최외덕, 최용준, 최용찬, 최우리, 최우정, 최원규, 최원석, 최원섭, 최원용, 최원춘, 최유경, 최유림, 최유진, 최유찬, 최유현, 최윤배, 최윤서, 최윤용, 최윤정, 최윤정, 최윤정, 최윤정, 최윤혁, 최윤희, 최윤희, 최은경, 최은서, 최은서, 최은영,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지, 최은혜, 최은희, 최의근, 최익순, 최인종, 최인혜, 최일준, 최임식, 최장섭, 최장원, 최재문, 최재성, 최재승, 최재연, 최재영, 최재용, 최재호, 최정선, 최정숙, 최정아, 최정우, 최정우, 최정은, 최정인, 최정훈, 최정희, 최종길, 최종식, 최종운, 최종희, 최주연, 최주원, 최주희, 최준식, 최준영, 최준원, 최준철, 최준호, 최지미, 최지수, 최지안, 최지연, 최지영, 최지영, 최지영, 최지원, 최지혜, 최진아, 최진영, 최진원, 최진주, 최진혁, 최진혁, 최진희, 최창수, 최창일, 최창진, 최창효, 최철규, 최철희, 최춘자, 최충호, 최하나, 최하늬, 최한경, 최한성, 최해상, 최현아, 최현정, 최현주, 최현지, 최현진, 최현진, 최혜경, 최혜린, 최혜림, 최혜민, 최혜순, 최혜연, 최혜원, 최혜은, 최혜정, 최혜정, 최혜진, 최혜현, 최호준, 최홍림, 최화춘, 최희영, 최희정, 추만엽, 추명수, 추명희, 추수미, 추윤경, 추정림, 추진식, 추진철, 추현준, 탁마리안, 탁정윤, 탁준영, 탁현정, 탁혜진, 탁호균, 탐남호, 통통이, 티티제, 파롬, 편경덕, 편원대, 편정범, 편준규, 표성균, 표지율, 푸르메퀵, 피승범, 하경환, 하상협, 하선영, 하선주, 하성숙, 하성은, 하성재, 하영식, 하유정, 하윤옥, 하은영, 하은희, 하인영, 하일식, 하재희, 하준호, 하지영, 하지혜, 하진주, 하진태, 하태규, 하현수, 하혜정, 한결, 한경민, 한경아, 한광수, 한국선, 한권용, 한귀생, 한규관, 한규범, 한규일, 한기옥, 한기은, 한길수, 한길자, 한다혜, 한대식, 한도숙, 한동수, 한동한, 한려원, 한명숙, 한명영, 한명주, 한무권, 한문규, 한미경, 한미정, 한미희, 한민수, 한별, 한별, 한보미, 한보미, 한보화, 한사랑, 한상규, 한상민, 한상영, 한상오, 한상표, 한상훈, 한서원, 한선규, 한선정, 한선희, 한성민, 한성재, 한세민, 한세희, 한소영, 한송이, 한송이, 한수혁, 한수희, 한순웅, 한승완, 한승휘, 한승희, 한신효, 한양수, 한영광, 한영아, 한용상, 한용석, 한우하, 한유빈, 한유선, 한윤주, 한은아, 한일웅, 한재우, 한재욱, 한재일, 한재준, 한재희, 한정미, 한정윤, 한종수, 한주연, 한주현, 한준구, 한지민, 한지민, 한지성, 한지연, 한지운, 한지윤, 한지현, 한창민, 한창인, 한충묵, 한태신, 한태형, 한하윤, 한현정, 한현주, 한현주, 한혜인, 한화갑, 한훈식, 함수정, 함우호, 함윤정, 허근, 허기호, 허나결, 허남경, 허다빈, 허다영, 허대성, 허동규, 허명남, 허미연, 허봉천, 허선무, 허수연, 허연실, 허영미, 허영인, 허영호, 허욱, 허원구, 허유빈, 허윤서, 허은미, 허은미, 허일화, 허일후, 허정경, 허정원, 허정화, 허종현, 허지연, 허지은, 허채은, 허호양, 허희선, 현산산, 현우진, 현은수, 현종필, 호현순, 홍경란, 홍경미, 홍경미, 홍경완, 홍경화, 홍계신, 홍광옥, 홍기남, 홍대영, 홍동우, 홍득보, 홍명진, 홍문희, 홍미영, 홍민아, 홍사민, 홍상표, 홍서연, 홍석주, 홍선미, 홍선영, 홍성민, 홍성옥, 홍성일, 홍성재, 홍성하, 홍성학, 홍성헌, 홍세정, 홍세진, 홍세희, 홍소영, 홍순기, 홍순철, 홍신애, 홍영미, 홍영수, 홍욱표, 홍원희, 홍유선, 홍유선, 홍유정, 홍윤기, 홍윤표, 홍은숙, 홍은숙, 홍은정, 홍은정, 홍은주, 홍익표, 홍익희, 홍인기, 홍인숙, 홍인숙, 홍자현, 홍재희, 홍정욱, 홍정일, 홍정표, 홍정화, 홍제선, 홍종현, 홍주의, 홍준영, 홍진영, 홍진원, 홍차영, 홍채윤, 홍초롱, 홍푸르메, 홍하율, 홍형택, 홍혜윤, 홍희정, 홍희정, 황경숙, 황경숙, 황경훈, 황관수, 황규홍, 황금희, 황기환, 황능덕, 황동진, 황명선, 황민주, 황백화, 황병준, 황보국, 황보예지, 황보혜, 황상훈, 황선실, 황선아, 황선영, 황선영, 황선영, 황선이, 황선희, 황성미, 황성엽, 황성철, 황소연, 황소영, 황수경, 황수미, 황수미, 황수아, 황수화, 황순구, 황순옥, 황순욱, 황승룡, 황승욱, 황승욱, 황승환, 황영규, 황영선, 황영철, 황옥경, 황옥영, 황용운, 황우람, 황우식, 황우연, 황은경, 황은미, 황은숙, 황은혜, 황은혜, 황응률, 황의장, 황의진, 황인숙, 황인실, 황인욱, 황인욱, 황인혜, 황재경, 황재인, 황재필, 황정윤, 황정필, 황정현, 황정혜, 황정환, 황지완, 황지원, 황지은, 황진호, 황진희, 황창서, 황채현, 황철호, 황초희, 황치조, 황현선, 황형준, 황혜경, 황혜정, 황희영, 흠나하 **(총 5,313명)**

기금 소개

재활치료시설 건립 기금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기금입니다. 질 높은 치료를 통한 회복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아가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 어린이재활병원건립기금, 만원의기적, 천원의기적, 기적의손잡기
- 이지선의1004희망기금, 아름人기금, 천지人기금, 김홍주1%기금, 성현메디텍기금
- 사랑의연탄기금, 화성시기금, 민사고G4기금, SK희망마라톤기금, 우리은행행복더함기금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기금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는 과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시설을 건립합니다. 건립 이후에는 치료와 교육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충실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잔디기금
- 인세기금, 210새봄기금, 이철재희망샘기금, 선인유니텍아이기금, 고정욱Free-Wheel기금, 배영일Good-Will기금
- 대한척수손상재활물리치료학회Re-Born기금, 100인후원회기금, 이종복투자클럽기금, 박연신목련기금, 열린지평기금, 노부부동행기금, 이토마토햇살증식기금, KB어린이재활센터건립기금, SK텔레콤건립기금, 벤치기금, 나무기금, 주춧돌기금, 나눔천사기금, 감동의마라톤기금, 아름다운시민기금, 가치넷행복증식기금, 석창우금곡기금, 경주마라톤희망기금, 이정식기금, 벽돌기금, 신한은행나눔치과건립기금, SBS사회공헌기금

배분사업 기금

치료에서 교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재활치료비, 맞춤형보조기구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어린이천사기금
- 나눔치과치료지원기금, 어깨동무기금, 보조기구지원기금, 100인후원회, SPC행복한펀드
- 이종복희망나무기금

지정 기금

장애인과 가족에게 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을 발간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연구 및 교육기금, 출판기금, 옥토버훼스트복지기금, 최중석출판기금

비지정 기금

장애인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합니다.

운영 기금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기부 참여 문의

문의 T. 02-720-7002 F. 02-720-7025 이 메 일 hope@purme.org 홈페이지 www.purme.org

주소 110-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세종마을푸르메센터 4층 푸르메재단

계좌이체(무통장입금)

• 국민 870301-04-013107 • 외환 630-005390-913 • 우리 1005-600-989825

• 농협 301-0027-7538-11 • 기업 024-062367-01-018

www. purme.org

발행일 : 2015년 3월 25일
발행인 : 김성수
발행처 : 푸르메재단 커뮤니케이션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89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4층
전화 : 02)6395-7110
팩스 : 02)720-7025
홈페이지 : www.purme.org
편집 디자인 : 도두커뮤니케이션 02)325-6110

이 책에 쓰인 내용 및 사진, 그림은 푸르메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